



2015 4집

—  
무지개빛다문화  
희망노트

1\_ 제6회 다문화수기공모대회 입상작 ..... 04

◎ 다문화가족 부문

1) 최우수상

- 베트남 새댁, 한국아줌마 되기 / 진민선

2) 우수상

-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나의 노력 / 홍라희

- 나의 작은 꿈!!! / 레마이딘

3) 장려상

- 노력이 나의 희망 에너지 / 김소정

- 한국과 하나가 된 내 소중한 운명 / 김지아

- 나의 한국 생활 / 김효주

- 아이의 꿈에 단비를 주고 싶어요 / 메디나

- 지금도 진행 중인 아름다운 나의 도전 / 준마

◎ 다문화활동가 부문

1) 최우수상

- 쫓! 무슨 소리가 들리니? / 신채연

2) 우수상

- 베트남 새댁의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를 보며 / 배말순

- 한국어선생님이 아니야! 엄마야 / 연봉월

3) 장려상

- 세계속의 행복한 아이 “글로벌 해피아이” (자녀지원사업) / 강기연

- 민들레 흩씨되어 / 이효순

2\_ 제8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작 ..... 82

◎ 결혼이주여성 부문

1) 중부대학교 총장상

- 한국인의 대접문화와 손 맛 / 와타나베 유코

2) 한국다문화연구원 이사장상

- 나는 한국인보다 생활력이 강하다. / 박정순

3) 최우수상

- 집 식당에서 겪었던 일 / 초은차이나

4) 우수상

- 긍정적인 마음의 힘 / 최미혜

5) 장려상

- 한국으로 시집온 며느리 / 팜티 투 이응옥

◎ 외국인 유학생 부문

1) 한국다문화연구원 이사장상

- 이모! 김치 더 주세요! / 도개리

2) 최우수상

- 나 자신이 대단하다 느낀 순간 / 마귀화

3) 우수상

- 한국에서 만나는 또 다른 나 / 여시배완

4) 장려상

- 오늘도 내일도 인사합니다. / 시령리

3\_ 다문화리porter 현장리포트 ..... 104

- 나의 가치 ? / 이즈미야마 시가꼬

- 한국인다운 한국인, 엄마다운 엄마 / 이즈미야마 시가꼬

- 이해 만세 / 장해구

- 제2고향 / 장해구

## 베트남 새댁, 한국아줌마 되기

진민선  
(베트남, 충남 홍성 거주)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여성입니다. 8년 전에 남편을 만나 2007년도에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3월 개나리가 핀 계절에 대한민국이란 땅을 밟고 여기서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tv를 통해 본 한국이 한국영화처럼 낭만적이었습니다. 입국초기에는 단순히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3개월 뒤 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죠! 당시에 국제통화망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국제전화요금이 비싸요. 친정엄마와 통화하려면 걸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베트남에서는 전화기를 갖고 있는 집이 사회에서 상층에 속한 집들이죠. 그래서 한번 통화하려면 미리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시간약속을 잡아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8세에 첫 아기를 임신하게 된 저는 기쁨도 컸지만 걱정도 컸습니다. 입덧 때문에 밥도 못하고 계속 밤낮 없이 잠만 잤습니다. 출산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친정엄마와 한번 통화하게 되면 통화시간이 길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요새 몸이 좀 이상해요” 할 말이 많습다. 제가 이런 고민과 걱정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누이와 친구와 응! 그들과 얘기하면 되겠네! 아니오! 한국에 온지 3-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 할 수 있으면 천재죠. 친구는 당시에 한국에 와서 고향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 했어요.

친정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겨우 5분도 안 되었는데 제 옆에서 말씀하세요. 요즘이 비싸다. 뭘 그렇게 길게 해 심할 때에는 끊어라 까지 하세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고요? 그럴 말씀을 몇 년간까지 이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수밖에 없어요. 임신 초기라 몸이 좋지 않은 저는 집안일을 덜하게 되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심이 나타나더라고요. 며느리가 잠자고 있는 방문을 덜컥덜컥 열고, 이것 해라 잠만 자니? 저녁을 조금 늦게 하게 되면 이것 저녁이나? 제사상을 차리니? 등 온갖 잔소리를 털어 놓습니다. 그럴 때면 다행히 남편이 저편을 들어 주었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야?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남편은 항상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들 앞에서는 엄청 잘 해준 척 “애기야 애기야” “난 네가 내 친딸처럼 생각 한다” 하다가 아들만 집을 비우면 얼굴 표정이 변한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가면이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밭에 가자, 고추 따자, 등등 남편만 집을 비우면 온갖 일을 시킨 시어머니 하고는 싶은데 배속에 있는 애기도 걱정되고 그러나 이 상황을 남편한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선택한 방법을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일가지마라고 했죠. 그때부터 남편을 어디를 가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를 질투라도 하듯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본인의 딸과 통화할 때마다 며느리 흉만 보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에 대해 맞장구를 친 시누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죠. 나의 곁에 내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참아도 어쩔 수가 없었죠,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기회가 생겼어요. 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아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센터를 홍보했어요. 센터에 나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 센터에 직원의 말씀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득 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허락하셨죠.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출산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을 중단했습니다. 애기를 잘 키우려면 엄마가 한국어를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기가 100일 쯤 지났을 때 남편의 허락을 받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면 남편과 많이 대화 할 수 있고, 좋은 엄마가 될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어를 조금하게 되고 장보기라든가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도망갈 거라는 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만 옆에서 부추기는 엄마와 누나들의 말이 있어서 한동안 많이 힘들고 갈등이 생겼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대로 하자” 등등. 평생 내 편이라 믿는 남편마저 변하고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찾게 된 남편, 그런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아기를 안고 밤새 울은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마냥 울고 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 한국어를 더 배워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이 하는 말이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역시 시어머니의 말이 영향이 컸죠.

아기기 아플 때에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예방접종이 어떻게 맞는지 걱정, 고민, 우울하고 있을 때 배속에 둘째가 자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애기가 생겼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어요. 겨우 큰 애기가 5~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으로 인해 스트레스, 양육경험 없는 19세 나이에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라는 생각으로 둘째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솔직히 임신 소식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낳고 싶지 않아서 낙태까지 생각했었어요. 친정엄마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임신했어요. 듣자마자 축하한다고 (엄마는 제가 힘들 상황이란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엄마가





걱정할까봐 전화할 때마다 온갖 거짓말을 했죠,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손주를 안겨 드려서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며느리도 겁나게 챙겨준다니깐, 등등) 하는 엄마의 말 듣고 저는 깨달았죠. 아이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축복이란 걸요.

시간이 흘러가고 배는 점점 갈수록 커지고 큰 애는 아직도 귀저기를 못 떼고, 가까스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친정 엄마를 초청했어요. 한국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된 엄마는 아이들 돌봐 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 주셨죠. 그런데 제가 대게 서운했던 것은 시어머니는 저를 대신에 저의 엄마한테 일을 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예요. 사돈 사이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벌어진 돈을 보관해 주겠다고 통장보관하고, 현금으로 벌어진 돈도 쓸 줄 모르는 며느리한테 맡길 수 없다며 일을 다녀오면 아들은 불러 세워 몽당 가져가고, 그러나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끝없이 며느리 흉을 본 어머니, 그에 대한 맞장구를 친 시누이 둘 다 정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의 엄마 말을 듣고 저한테 전화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죠, 그것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시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몇 천만 원을 들고 데리고 왔는데 주제를 몰라” 순간 이런 생각을 했죠. 시댁 식구들의 마음에는 난 식구가 아니라 단지 손자, 후손을 얻기 위한 돈을 들어 사온 기계 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비참했죠.

그렇게 고부갈등을 깊어가고 두 아이를 키우다보니 힘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제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의 100일 날에 남편과 마주 앉아 우리 이혼할까? 라는 말을 남편한테 했어요. 남편도 뭔가 느꼈겠죠. 한잠 앉아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용했어요. 남편 입에서 답이 나왔죠. 내가 노력할게, 술과 담배도 끊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이날 저의 부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 이틀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많은 설득 끝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허락을 받아 얘기를 업고 센터에 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한 외국인 등록증, 여권을 시어머니가 보관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어요. 집에서 명절이나 가족행사 있을 때면 시누이들이 오세요, 그 분들이 오시면 저는 외계인처럼 느껴져요. 서로 다정하게 수다도 떨고, 갈 때면 뭐든지 퍼주는 시어머니,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런 면이 있구나, 노력해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지 그때부터 시어머니한테 기대한 것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제가 하는 것은 단지 며느리의 의무, 그런데도 제가 분가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시어머니가 없으면 저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예요. 이렇게 2~3년 웃는 일보다 우는 일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3년이란 기간이 짧은 시간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매일 바쁘게 아침을 맞는 일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두 아이가 커가면서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질문도 많아집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당황하고 대답해 줄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저의 아기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니 엄마가 배워야 할 것이 많더군요. 일일이 알람장을 확인하고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간단히 써서 보내 주어야 하고, 아플 때에는 약과 투약의뢰서도 작성해 보내 주어야죠, 한국어가 서툰 엄마한테는 큰 어려움이죠. 가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회, 공개수업, 소풍을 합니다,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첫 번째로 아이의 공개수업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날 저녁에 아이가 말하는 군요, 엄마 베트남이 뭐야,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친구가 엄마 베트남사람이라 그래서 말도 못한다”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야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지? 잠깐 망설이다가 열심히 아이에게 설명했죠. 엄마 베트남사람 맞아, 그런데 말 못하는 거 아니라 배우고 있는 중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배울 거야!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고, 공부가 많이 어려웠어요. 단어, 조사, 문법 헛갈렸어요. 무엇보다 단어를 외워야 할 때에는 사전을 찾아 단어장을 만들고 썬크대, 냉장고, 침대, 거울, 보이는 대로 붙여 놓고 눈에 띄는 대로 한번 외워야했어요. 문장 쓰기 연습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부터 시작하고 점점 50자, 100자 150자 지금은 약간 긴 문장도 쓸 수 있습니다. 조사도 한국어를 배운지 거의 4년 이제야 조금씩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큰 아이가 7살 때 학교와 익숙해지라고 미리 학교 병설유치원에 일 년 먼저 보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학부모운영 회, 봉사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아이가 고민을 털어 놓았어요, 엄마 몇 친구가 나랑 안 논대. 왜 너랑 안 놀는지 물어 봤니? 했더니 자기 엄마가 나와 같이 놀지마라고 했대. 순간 저는 한국 사람이 차갑고 무섭게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러한 행동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망가들이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다문화 세상에 접어들어간 추세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냉정하기만 합니다. 이제야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 저의 아들이 앞으로 20년이나 더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란 명칭이 아이에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저는 다문화 분야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센터에 실무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바램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동포 친구를 돕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나의 노력

**홍 라 희**  
(베트남, 대전 거주)

저는 베트남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다. 일 년 중에 저희 삼남매가 가장 기대하는 날은 바로 '절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제 모습을 보면 인생은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꼭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교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부모님, 이웃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모습으로 스스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전문학교(2년)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서 한 번의 실패는 그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학교를 다니는 동안 제 꿈을 위해 다시 공부를 하였고, 원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며 부모님에게 합격소식을 전했고,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던 부모님의 웃음과 환한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형편이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해 저의 학비에 대해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오빠는 자신이 일





을 하면서 저의 학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며, 저는 아직도 어제의 일과 같이 그 고마움과 따뜻한 마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고마운 도움과 제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대학교 공부를 마치게 되었고, 졸업 후 1년 동안 회계직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4시간이 걸리는 한국...

저는 베트남에서 4시간의 비행 후,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길가에 하얗게 펼쳐진 눈 내린 광경에 머릿속이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이 한국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8살 때부터 학교 공부로 인해 독립을 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지만 다른 나라까지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되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니 미래가 깜깜했습니다. 저는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와 같이 언어를 배우고 한국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학교로 가는 첫 날, 남편이 동행해 주며 학교를 오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저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던 시기에 혼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일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시기는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으로 인해 심한 멀미와 처음 겪는 한국의 겨울 날씨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빠지고 집에서 잠만 자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한국

말을 몰라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길도 몰라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혼자서 수없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이 없어 머리만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학교를 다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점점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표정도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빨리 배워서 능통해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TOPIK시험,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비즈공예와 요가, 요리 등도 배우며 아기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날, 배가 터질 것 같은 한 임신부가 고사장에 들어갔고 같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과 감독관들이 그 임신부보다 더 긴장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 임신부는 바로 저였습니다. 시험을 본 다음날에 저는 세상에 나온 우리 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후 17일째 되는 날에는 iTOP 경진대회를 참여하고 대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열심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에게 좋은 직장에서의 제안이 왔습니다. '5개월 된 아들을 두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놓치면 너무 큰 후회가 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선택을 했던 때가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국 사람들과 문화를 포함해 많은 부분이 다른 사회에서 살았지만, 제가 결정한 일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전 2주간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서울에서 합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유를 먹는 6개월 된 아들이 엄마의 교육 때문에 분유를 먹으며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것이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매일 저녁마다 젖을 짜고 냉동실에 보관을 해두었는데, 이것 말고는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대전 외에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KTX를 타는 것도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거미줄 같은 서울의 지하철은 세상을 살면서 처음 겪는 교통수단의 어지러움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역의 이름도 어려웠고, 환승을 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두 한 걸음부터 시작을 했을 거야. 그러니 나도 어려움을 견디고 한 걸음씩 나가면 언젠가 어려운 환경도 잘 처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국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 사람도 역시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겠죠?



아이들이 처음 해 본 것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듯이 어른이 된 저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언어와 문화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번, 두번, 세번 할 것 없이 능통하게 할 수 있을 때 까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의 성함을 틀리게 말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미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며 떨리고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저는 확실히 발음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 한국 사람들과 농담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열심히 익혀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비도 쓰고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으며, 고향에 갈 때 비행기 값으로 쓰기 위해 조금씩 모았습니다. 한국에 온지 3년 째 되던 해에 제가 모았던 적금으로 아들과 함께 친정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설날에 맞춰서 친정에 가게 되었는데, 설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설날만큼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이바이 공항에서 제가 살았던 지역까지는 비행기를 내려서도 고속버스로 3시간을 더 가야합니다. 고향에 들어선 순간 긴 여행의 피곤함도 잊혀질만큼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숨을 쉬고 또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깊게 고향의 향기를 담아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외손자를 실제로 처음 본 친정 부모님의 기뻐하는 감정을 그 표정 속에서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고향에 방문한 기간 동안 친척도 만나고 스승님도 뵈었으며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가족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



로 저의 하나뿐인 오빠가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올케언니가 백년해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 마음도 편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 살도 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친정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많이 포장해 주시면서 건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아들은 6살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베트남의 외갓집을 방문하였을 때가 14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는 베트남에 다녀왔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이후에 저는 베트남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멀리 시집을 오다보니 친정에 자주 가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1년에 적어도 2~3회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친정에 매우 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좀 더 벌어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싶지만 아직 실현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이 생기지만, 가끔씩 조그마한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 맞게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한 집안의 며느리와 부인,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살다보니 몸살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아무 것도 하기 싫고,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도 싶습니다. 특히나 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힘이 되는 격려와 충고를 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제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충전이 된 저는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한걸음씩 더 나아갑니다.

저는 제 삶이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힘들었지만 노

력하고 견딘 시간과 과정들이 누구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장점과 특별한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고, 저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점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고, 지금은 저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의 인생을 위해 더욱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힘들어 하던 것처럼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없으면 행복과 웃음이 오를지나 내일, 당장 없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스스로 지켜야하고,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 나의 작은 꿈!!!

**레마이딘**  
(베트남, 대전 거주)

베트남 끝자락 남부지방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사랑을 가득 받는 막내인 나는 욕심쟁이었다. 항상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예쁜 짓 고운 말만 골라서 했다.

원래 똑똑해서 집에서든 친척 분들과 동네에서 항상 인정을 받았다. 한 마디로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한 아이였다. 하지만 남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나한테는 부족한 사랑이 있었다. 나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매일 술에 취한 아빠의 모습, 술에 취해 엄마한테 욕하는 목소리, 그리고 엄마를 때리던 아빠의 손길... 이상한 일은 그렇게 엄마한테 나쁜 행동을 하고는 나한테만은 유독 사랑한다고 하셨다. 나를 사랑했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하려보다 더 못되게 하지 않았겠지... 아빠는 거짓말쟁이... 외롭고 괴로운 엄마의 아픈 모습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베트남 사람이 아닌 국제결혼을 해서 엄마를 편하게 함께 살게 해주려고 결정했다. 다행이도 18살 소녀가 되자 어떤 사람이 국제결혼을 소개 해주겠다고 했다. 늘 한국드라마에 보면 예쁜 집만 있고,

베트남에서 보기 힘든 자동차와 놀이시설, 경치도 너무 예뻐서 내 마음을 꼬셨다.

아무 생각, 걱정 없이 바로 결혼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2009년에 19살에 소개받아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처음 볼 때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 결혼식도 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랑 없이 꿈만 가지고 결혼한 거라서 많이 허전했었다.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공항에서 나올 때 '드라마랑 똑같구나' 라는 착각...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완전 절망이었다.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모르고 음식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만 느껴졌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다. 하나 둘 씩 배워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진짜 나를 더 외롭고 힘들게 한 것은... 혼자라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시댁과도 잘 안 만난다. 시댁식구들도 친척들과도 잘 만나지 않았다. 언제인가 남편의 아내인 내가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라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였다. 그나마 몇 년이라는 시간동안 몇 번은 만났고, 가끔 둘째 시누이 외에는 만나는 사람조차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요청할 곳이 없었다. 아쉽게도 남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는 않았었다.

그러다 내 옆에 딸이 생겼다. 덜 외롭지만 혼자서 돌봐야 돼서 힘이 많이 들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기에 결심을 하고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네 새마을부녀회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함께 소개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취직하며 4년 만에 첫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행복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게 되니 잃게 되는 것이 있었다. 어





느 날부터 집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이유는 남편이 아픈 곳도 없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째 실직자로 집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잔소리를 듣는 것조차 싫었기에 누구에게도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유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에게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싶었을 뿐이다. 남편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길 바랐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집에 들어오면 청소부터 저녁준비, 그리고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식사준비를 마치고 출근하고, 이렇게 생활하기를 2년째 하고 있다. 그 과정에 나의 바람은 단순하다. 실직자여도 좋다. 내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면 살며시 안아주며 반가워해주고, 내 고민도 들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집에 있으면서도 청소며, 아이 돌보는 일까지 전혀 하지 않는다. 그저 TV와 컴퓨터만 보고 있다. 어떤 때는 내가 집에 오면 친구들과 술 먹으러 간다고 나가서 새벽에야 들어오곤 한다.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한 겨울에도 신발도 신지 않은 나를 바깥으로 쫓아낸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것이 수십 번은 된다. 그때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이렇게 나를 싫어하면서, 이렇게 할 거면 왜 데리고 왔냐고” 그 소리에 남편은 나한테 달려와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다.

때리고 나서 또 미안하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한다. 하지만 그 생활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지도 못했다. 시댁식구들은 알면서도 부부가 참고 잘 지내라고만 한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보려고 참고, 참고 또 수십 번 참았다. 지금은 생활비 벌기도 너무 힘들고 몸도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다. 아직도 젊

어서 그런지 해보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은데 뒤에서 든든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어린 시절 작은 소망 하나,

먼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시집을 오고 벌써 6년이 다 되어간다. 우리 아빠는 엄마에게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었다. 그 모습이 싫어 베트남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무작정 남편을 만나 행복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다.

지금의 나의 작은 소망 하나,

한국에 온 후,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폭행당하고, 쫓겨나고... 어린 시절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나도 사람입니다. 존경은 아니더라도 사랑 받기에 충분한 여린 여자이며, 한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부인입니다.

해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전문과정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여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진실한 나의 작은 소망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가장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어주고, 다른 가족들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고 관심과 나를 아껴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 주기를...





## 노력이 나의 희망 에너지

**김 소 정**  
(몽골, 충남 서산 거주)

수기 공모를 알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 전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한국에 처음 이주여성으로 왔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로부터 몽골에서 사회생활을 했던 저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서 인생은 어떻게 된 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황당한 일들로 얼룩졌습니다.

이는 사람 하나 없는 저는 가족과 친구들이 멀리 있어 모든 일에 스스로 적응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애썼지만 결국은 철없던 탓인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린나이에 타국 땅에 와서 고비를 넘기려면 3년은 있어야 된다고 하여 참고 참고 또 참아내어 두 아들 엄마가 되고, 홀시아버지를 9년 동안 잘 모시면서 살아 왔지만 아프로 또 잘 모실겁니다. 할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좋아하고 잘 모신다는 생각이 있는 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지만 처음부터 빛이 많은 집에 시집 왔어 지금까지 살음이 노력 끝에 이제야 빛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기 있는 전공을 했어도 한국에서 인정하고 받아줄만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계를 위해 바닷일(해산물) 및 농사일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 본 적 없는 저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강해지고, 누구도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줄 사람 없으니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 아이 엄마가 돼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독해져갔습니다. 고되고 힘든 노동일자리, 농업은일자리, 바닷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일을 하니 한국말과 예절, 풍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배우고, 돈도 벌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된겁니다. 공부해서 한국말을 배운 것이 아니라서 쓰기는 엉망이지만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방문지도사가 오셔서 한글을 가르쳐주시고 참 성격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든 다 1등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2등으로 가는 게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 안정적인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 머릿속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한번 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만족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을 조금 더 생각하면 후회하고 원망할 일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내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하고!!

그 동안 경제적 어려움도 많았고 힘이 들었으며 한 가정의 주부, 홀시아버지 6년이 걸쳐 한동안 대수술 2번 심근경색 및 다른 수술, 시술 등 많이 하고 경제적 어려움 생기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이 건강해지셔서 일 손 돕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에 도움 되고 계셔서 뿌듯하고, 두 아들이 엄마로 열심히 또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월이 금방 지났습니다. 제 인생을 찾기 위해 새로



운 환경에서 시작기로 마음 먹고 찾아온 곳이 다문화센터였습니다.

시골에서 시내 온 거리는 시골버스타고 30분 다녀왔어 여러 나라 친구들 만나보고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은 생각 끝에 2010년 10월에 국적 취득 했지만 가정 중요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국어공부를 하겠다고 다정하고 요양보호사, 운전면허, ITO 컴퓨터 등 자격증 취득하고 일자리를 알아 봤지만 결국은 생계를 위해 또다시 바다 나가서 조개 잡고, 굴 주는 또는 농업은 일자리, 식당, 청소 등 여러 노동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바다가 없는 몽골 나라에서 시집 왔기 때문에 다양한 해산물들 먹기조차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까지 무서워했습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더라구요.

지금은 해산물 음식을 제철에 따라 새우, 낙지, 꽃게, 우럭 회, 집나간 머느리도 돌아온다는 대표생선 “전어구이”까지 해산물을 맛있게 즐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많고 힘들고, 시아버지나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아이들 돌보고, 밥 주고, 홀시아버지를 돌보고, 학교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맞는 일자리 없고 있는게 농업은 밭 바다, 노동 일거리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말에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라고 하죠 거짓말처럼 정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자신감을 잃어가던 저에게 행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바로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웃음을 잃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던 저에게 웃음을 찾아 주었고, 언제나 즐겁고 활기차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된 겁니다.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이 안내하길 서산시 지역일자리 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돌보고, 다문화 작은 도서관 업무 봉사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냐면서 차근차근 설

명해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던 일이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얼른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근무지도 우리 센터에서 하니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로 시작하고, 작은 도서관 업무봉사 하면서 여러 나라의 엄마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귀엽고 깜찍한 꼬마 아이들을 돌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다문화 후배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의 초보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로서 아이에게 이유식 만드는 법이나, 언어 등에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다른 나라 초보엄마들도 저처럼 한국생활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주여성들을 보면 지난 제 인생이 생각나서 아이 키우는 방법이나 마사지 및 이유식 만드는 법 그리고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 등 도움이 될 만하면 바로 설명해주고 이야기 해주면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웃들, 이주여성들,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및 이주여성 통번역자원봉사, 다문화차녀 프로그램에 아이돌봄 자원봉사, 다문화센터 어울림 장터 (몽골 음식) 만들기 자원봉사 등 또는 다문화 작은 도서관에 업무봉사하면서 책 안 쪽 속이나 세상 속까지 읽어 볼 수 있었어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는 행복의 작은 부분을 찾고 함께 어울리며 보람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는 제일 중요한 봉사는 “다모니”랑 한국 전래동화 잡지 책 몽골어 번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어 및 5국 언어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 만들게 되고 벌써 3번째 책이 우리 다문화 와 우리 아이들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소망이





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전래동화 책을 몽골어로 읽어 줄 수 있는 보람이 됩니다. 지금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저 같은 고민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책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신감 생깁니다. 큰 아들이 어렸을때 할아버지께서 책을 많이 읽어 주셨으며 가끔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하고 할아버지랑 싱글벙글 대화도 하고, 웃고 떠들고 때로는 싸움 같지 않는 싸움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돼서 좋은 추억이 만들고 고마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김건국이 6살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로써 서운하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출산은 제가 했어도... 아이가 5개월 때부터 할아버지가 동네 회관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놀고 사투리도 배우고 엄마가 전혀 못 알아듣는 사투리를 사용할 때 많아서 웃겼습니다.

예를 들면: 염소를 ~ 염생이, 향아리를 ~ 바탕이, 먼지를 ~ 탑세기, 고양이를 ~ 켈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다니고, 엄마 아빠하고는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조개 캐러 다녔습니다. 바닷(해산물) 일이 힘들어도 돈 벌어야 하는 일이니까 아이 걱정하면서도 다녔습니다. 때론 장난꾸러기 놀다가 할아버지가 잠 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은 것을 모르시고 외출을 하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즐거움 속에서 힘들게 나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많을 겁니다만 지금은 저의 큰 아들 오히려 아이 어린 와 애어린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서 남다르게 느끼고 남들이 아이를 어쩔 이렇게 잘 키웠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처음 어버이날에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꽃에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쓴 글씨 보고 가슴이 짹하고 감동했던 적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남동생을 낳아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하며 과하게 돈 욕심보다 온 가족이 건강을 챙겨가며, 잘 난 것보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름더위 처럼 곧 지나갈 거라 믿고 저는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과거에 어떤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었다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 아이들한테 제 고향 몽골의 문화와 풍습을 알려주고,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우울함과 불평불만을 없애주고 자신감과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혜택과 도움을 받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말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풍습도 배우고, 하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왔어 찌자로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바쁘게 달리고 있는 저의 희망과 행복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결정한 저에게 사랑하고 파이팅!!





## 한국과 하나가 된 내 소중한 운명

김 지 아  
(몽골, 충남 홍성 거주)

상큼한 아침이 밝았다. 한국에서 아침을 맞이한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야 뒤를 돌아 보니 지난 삶에 이주여성으로서 겪어야했던 그 모든 어려움 하나 하나가 나를 훈련 시켰던 소중한 의미가 있었던 것을 알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 나는 낯선 언어, 문화, 환경, 생활습관이라는 많은 벽들을 넘어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으로 향해 국제결혼을 해온 수 많은 이주여성들 중 하나다. 2007년 여름에 내 고향 몽골을 뒀나, 한국 땅에 왔었다. 한국에 먼저 시집 온 아는 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나, 국제결혼을 결심했다. 낯선 나라에 아직은 알지도 못한 남편을 따라 시집 왔다는 그 큰 용기가 내 자신 속에서 나왔다는 것에 나는 아직도 놀라울때가 있다.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실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새아버지가 생겼고, 어린 나이에 마음속 상처와 슬픈 기억들을 안고만 있었던 말이 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에 큰 결심을 내리고, 한국 땅에 두번째 삶을 시작 하였다. 한국에 오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이 운명을 따라, 의미와 책임감 있게, 또 다른 이주여성인 내 뒤에서 따라 올수 있게끔 삶의 길을 정확하게 살고싶었다. 내가 겪어 봤기 때문에 그들의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부딪치고 있는 그 곤란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주여성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유로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았으면 하는게 내 간절한 바람이다. 왜냐하면 이주여성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나는 이주여성으니까요.

### 한국에서 시작 된 내 사회 생활

오늘 아침에도 나는 출근 길에 바빴다. 6개월 전부터 나는 “장수”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 일이 생각 보다 쉽지 않았다. 마음과 몸의 아픔을 달고 사는 그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한 마디도 상처가 될수 있다. 고통스러워하니깐 다가 가는 모두가 자신을 무시한것 처럼 느끼고, 그 어떤 말도 예민하게 받아드린다. 이런 그들에게 다가 가려면 요양보호사 태도가 중요했다. 물론 그 누구를 아프지 않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그냥 그의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인 것 같다. 처음에 나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버터 주려고 취직을 했었다. 하지만 몇달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순간에 내 자신에게 결심을 했다. 매일 아침에 출근 하기 전에 “그래, 오늘 하루만 살자, 이들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순간에 진심과 따뜻함을 담아서 최선을 다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일 시작하지 얼마 안되는데... 그 진심이 모든 상대에게 전달이 되었기 시작 하였다. 원래 말이 없고 소극적 성격인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 정성과 진심만 있다면 사람들은 서로가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 정성을 동료들과 환자들이 알아 주었다. 마음이라는게 거짓을 못하는 것이였다. 정성을 드리면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 반응들이 보였다. 일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요즘에는 직장 동료들과 환자들이 오히려 나를 챙겨 주는게 느껴지고, 배려 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다. 나는





발음이 서투르는 이주여성이지만 이런 나한테 외국이다라는 태도로 대해를 하는 사람은 단한명도 없었다. 딸 처럼, 동생 처럼 대화를 나누고, 아껴 주셨다. 요즘에 나한테는 출근하는 길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길이다.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사람들과 지나지도, 다가 가지도 못하고 외롭기만 했던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다녔다는것, 뿐만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한다는것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내 주위를 둘러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두가 한국인들이고,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정을 느꼈다. 점점더 감사하는 마음이 떠올랐다. 나를 한국인으로 받아드리고, 한국에서 나를 사랑 해주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그들의 아픔은 내 아픔 처럼 느꼈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남편은 어릴때부터 강난한 집에서 자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바다 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40대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서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 집은 홍성에 작은 월셋방에서 생활을 한다. 방세부터 시작해서 전기세, 관리비, 아이 학원비용 등 내야할 세금들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혼자 벌어서 생활 할 수가 없었다. 그가 사료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남편을 도와 회사 취직 하게 되었다.

우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라 아직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기도 한다. 처음에는 엄마가 직장 다니기 시작 했을 때 “엄마 일 다니지 말고 집에 있었으면 좋는데...” 라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직장 다니는 것을 인정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들이 다가 와서 “엄마! 회사 다녀도 야근 하지 말고 밤에는 내 옆에 있어 줘면 안되? 엄마가 없을 때 무섭다는 말이야” 라고 부탁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동료들과 돌아가면서 한달에 8번쯤

은 야근근무가 있다. 이게 우리 아들에게는 큰 고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아이에게 “엄마가 생활을 위해서 돈 벌어야되” 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사랑, 관심 달라고, 엄마랑 같이 있고싶어하는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싫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밥을 해주고, 채워 주는것 처럼 회사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밥을 먹여 드리고, 채워 드려야되거든. 승혁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것 처럼 그 어르신들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가는거야. 미안해. 엄마가 일 끝나고 와서 많이 놀아 줄게” 이게 매일 출근 할 때 내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다.

그 동안 남편을 만나, 8년 넘게 살아왔을 때 남편이 강난하니까, 돈을 못 벌으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생각만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 돈에 관계 없이 남편이 술을 끊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바램이었다. 다행히 우리 남편은 마음만으로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였다. 어렵게 고생 하고 살아서 술 먹는 버릇이 있었지만 인간으로서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였다는 점에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어릴 때 새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내 마음이 항상 아파했다. 그때부터 작은 가슴에 꿈을 꾀던 것은 돈이 아니고, “평화”였다. 어린 나이에 우리 가족에게 편안함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에 부모님 모두의 사랑을 뽐뽐 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가장 부러워했다. 좋은것 입고, 맛있는것 먹고 살아도 편안함과 행복이 없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바뀌면 눈에 보이는 것이였다. 돈, 능력은 없어도 내 옆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였다. 가정을 꾸려 결혼 생활하는 지난 세월에 남편도 술을 많이 즐였고, 우리 가족을 이끌여 가려고 나름대로 고생을 꽤 많이 했다.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도 여러가지 벽에 부딪혔다. 그럴때는 지치고, 힘이 들었던 날들이 많았다. 어느때는 나한테





잔소리를 듣고, 회식 자리에서 빠지며 집에 일찍 왔었다. 이럴때 가끔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남편이 건강을 생각하면 술을 더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행복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남편에게 한 마디를 남기고 싶었다.

“여보! 이제부터 당신도 건강을 잘 챙겨서 오래 오래 살아줘요. 우리 가족 3명이 매일, 매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승혁이랑, 나랑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으니 오늘 하루도 힘을 내세요. 사랑합니다.”

## 나의 한국 생활

김효주  
(필리핀, 대전 거주)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라리비에 에스 안드레스입니다. 제 이름은 좀 길어서 사람들은 저를 아이비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국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2007년 4월 1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신랑을 필리핀에서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신랑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만났고 식사를 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을 아무것도 모르니 듣기 만했습니다. 대답도 못 했습니다. 그래도 답답했지만 저는 눈치 빨라서 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들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침 나물들은 좀 맛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큰형님과 큰아주버님과 시어머님께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서 우리 신랑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무섭지 않았습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됐고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 6개월 동안 집에서 토요일마다 2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이 여기 저기 한국어 수업을 찾아서 제게 알려주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대화동 성당과 모이세 카톨릭을 다니며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데려다 주고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형



님도 우송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한국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1년 반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초급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신랑과 나랑 같이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밥을 먹을 때, 집에서 나왔을 때 자주 싸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궁금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너무 길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기 전에 신랑이 영어와 중국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어를 공부해도 우리 신랑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저에게 한국어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짜증냈습니다. 어떤 발음이 나와야 하는지 따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영어로 번역이 있었고 영어 발음도 나왔습니다. 신랑이 자꾸 저한테 틀렸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싸우니까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와서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이 나왔는지 알려줬습니다. 밤 새서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출근한 다음에 형님이 사시는 밑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올라와서 또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형님이 바쁠 때도 할 일이 많아도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를 많이 사주고 예쁜 옷을 많이 사줬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줬습니다. 큰형님이 저한테 너무 너무 잘 해줘서 지금까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은 제가 “예”, “아니요” 밖에 할 줄 몰라도 제 뜻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 줬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항상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언제 한국말을 잘 할까? 언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며칠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문장도 만들고 일기도 썼습니다. 두렵지 않고 지금은 자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랑과 나랑 조금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잘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싸우던 이야기를 하면서 웃습니다. 또 옛날에는 바깥에 나가지 못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길을 알아서 우리 동네에 혼자 돌아다닙니다.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만큼 배웠습니다.

몇 개월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우리 옆집에 초등학생 아이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저는 학원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시는 원장님께 저를 소개했습니다. 1주일에 한번 4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돈을 버는 게 더 좋았습니다. 좀 한국말을 할 수 있고 바깥에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자 교차로를 가지고 와서 다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찾았습니다. 지엔비 학원에 필리핀 사람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전화 한 다음에 신랑과 나는 저녁에 괴정동 지엔비를 갔습니다. 신랑과 원장님이 잘 이야기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3번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다른 일도 생겼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소개해주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가양2동사무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쳤고 동아미스터 고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회화수업을 했고 계룡공고에서 영어캠프를 1년 마다 일주일 동안씩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일주일에 1시간씩 어르신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지엔비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이 끝난 다음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거나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풀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어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넓고 착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님께서서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빨리 아이가 생기를 우리 시어머님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신랑이 나이가 많아서 나올 수 있는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나랑 병원에 가서 둘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문제없고 정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잘 먹고 1년 6개월 만에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을 좋아해? 딸을 좋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일 끝나고 왔을 때 아들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님께도 알려드려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무거워서 혼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 우리 신랑이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우리 신랑이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딸” 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신랑이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남편과 싸웠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우리 신랑이 저한테 한국말을 빨리 빨리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째는 저한테 만약에 못 알아들었거나 이해가 안 되면 “네” 만 하지 말고 다시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슬이 태어날 때까지 항상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안 알려주고 저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또 힘들었던 일은 임신 했을 때 아침에 집을 나와서 일하면 딱 12시에 끝나는데 우리 신랑이 전화해서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고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랑 나랑 같이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몸은 너무 무거운데 버스를 타고 내려서 우리 집까지 걸어야합니다. 12시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30분이 걸렸고 밥을 차려야했습니다. 또 다시 집을 나와서 학원에 가서 2시에 수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또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안 가는 날에 산내에 갔습니다. 신랑 몰래 운전 시험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와서 접수만하고 책을 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우리 신랑이

전화 왔습니다. 왜 전화기 꺼져있고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산내 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운전 면허증 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제가 산 책을 보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머리도 아팠습니다.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집에 왔는데 운전 시험 책을 사줬습니다. 제가 산 책보다 두꺼웠습니다. 이런 두꺼운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용도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책을 보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그 두 권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운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랑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그때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이제는 한국말을 이해하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어디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행복한 날보다 슬픈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제가 가족이 없다면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님께서 몇 년 만에 같이 살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 동안 손주들과 신랑과 나를 못 만났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끔찍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희귀한 병이라고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뒀고 항상 집에만 있습니다. 걸을 수 있지만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몇 번 넘어졌습니다. 우리 신랑의 모든 가족들이 알았고 신랑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부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해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신랑 몸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신랑이 빨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고 하느님이 자신을 얼른 데려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았습니다. 우리 신랑의 마음을 알았고 가지고 있는 병도 이해했습니다. 그때는 셋째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도 없이 생겼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셋째 아이를 건





강하게 낳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우리 신랑이 우리 셋째 아이를 돌봐주고 저는 여기 저기 학원에 다닙니다. 수업 끝나고 과외도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가족이 같이 있으면서 다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느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김효주입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세 아이와 남편과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필리핀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할 것입니다.

## 아이의 꿈에 단비를 주고 싶어요

**메 디 나**  
(카자흐스탄, 충남 예산 거주)

저의 고향은 카자흐스탄입니다. 2003년 저는 결혼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2살 딸과 10살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다문화 여성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5학년 첫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엄마로 인해 혹시 아이가 힘든 학교생활을 할까봐 고민도 했고 도와주지 못할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이들의 초등교육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저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오랫동안 잠을 자다 다시 깨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이부카 마사루가 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대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에서 13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출생과 단조로운 주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제 생활을 바꾸기 위한 동기가 생겼습니다.

이 책에서 느낀 경이로운 점은 무엇이였을까?





이부카 마사루는 어린이에게 뭐든지 가르치면 아이들은 쉽게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가끔 게으름을 피우며 공부하는데 어린이는 3살까지 항상 배우고 싶어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현명한 교사와 부모 덕분에 아이들이 3살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로 말하기, 바이올린 켜기 등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잘 키우면 저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제 딸이 자신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흥미로운 직업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딸과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고 남편은 한국어로 합니다. 남편은 우리 아이가 일찍 말을 할 수 있게 큰 낱말 그림카드를 샀습니다. 저는 미국 교사 Elen Dowman의 교수법에 따라 딸이 8개월부터 하루에 한 번 카드 5개씩 보여 주면서 큰 소리로 물건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카드 세트를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카드놀이는 어린이의 언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건의 이름을 문제없이 알아보고 이름도 쉽게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손과 두뇌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손이 발달하면 두뇌도 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손과 두뇌의 발달을 위해 이탈리아 교사 Maria Montessory의 교수법에 따라 딸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게 해 주었습니다. 딱딱한 벽, 부드러운 인형, 까칠까칠한 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등을 만지게 해 주었습니다, 맨 처음 글씨를 쓰는 것을 배웠을 때 종이에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뿌린 책상에 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예쁜 꽃, 동물의 모

양, 인형그릇과 멋진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죽이 굳으면 알록달록한 매니큐어로 색칠도 하고 그 외에 성냥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아이와 함께 그림그리기와 만들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딸에게 동화책을 많이 보여주고 러시아 동화와 시도 자주 접하게 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고전 음악도 들려주었더니 제 딸은 일찍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딸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딸이 15개월이 될 즈음, 과일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굴 그림 카드를 보여 주면서 러시아어로 ‘mandarin이야. 한 번 따라 해봐.’라고 하자 제 딸은 갑자기 러시아어로 굴이 아닌 ‘banana’라고 했습니다.

전 한글과 영어와 러시아어의 알파벳, 숫자, 모양과 색 등을 가르치기 위해 그림 퀴즈 문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지루한 수업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 그림카드를 올려놓기’라는 놀이가 있는데 이걸 색종이로 집 모양 4개를 준비해서 집 창문은 다양한 모양으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하트 등) 오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따로 준비해 딸아이가 놀이 카드 중 1장과 같은 모양의 그림 카드를 찾아 집 창문에 올려놓고 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진행하면 모양의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숫자, 글자, 색깔도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이 질리지 않도록 다양한 퀴즈를 종류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집 모양, 기차 모양, 아파트 모양, 버스 모양 등이 있습니다.

그림 퀴즈 문제라는 학습을 통해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상상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제 딸은 그림 퀴즈 놀이를 하면서 한글, 숫자, 영어 알파벳과 러시아 단어를 4살까지 배웠습니다.





지금 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와 예산군에서 열린 여러 대회에 출전해 많은 상을 탔습니다. 공부도 잘 하고 그림도 정말 잘 그리며 요즘은 오카리나도 배우고 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까지도 배우고 2012년에는 '전국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딸과는 성격이 너무 달라 그림퀴즈는 딸의 수준에 맞춰 만들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이, 흥미, 언어 학습의 수준에 따라 새롭고 재미있는 놀이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딸과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울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말이죠.

겨울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가 돋보기로 눈송이를 관찰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꿈틀거리는 개미를 관찰하고 잠자리채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으러 쫓아다니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아빠와 옥상에서 큰 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법사 놀이를 하며 마법사가 된다면 무엇을 할 지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저희 딸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딸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인데 엄마와 아빠를 위해 젊어지는 약을 만들고 싶다고 하니 어찌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젊어지는 약을 마시면 엄마와 아빠는 다시 젊어져서 오래 오래 살 것입니다. 제 친구는 제 딸에게 주름과 기미를 없애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딸은 주

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 딸은 물리학과 화학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게임을 통해 물리학과 화학을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 교육법은 게임을 할 때 엄마, 아빠도 놀이에 참여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순간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족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웃이 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멋진 엄마가 되어 보자고요.





## 지금도 진행 중인 아름다운 나의 도전

**준 마**  
(중국, 충남 예산 거주)

티베트는 중국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지방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여행을 온다. 남편은 티베트 여행을 와서 고산병에 걸려서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기념품을 사러 시장에 가는 길에 우리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서로 친하게 되었다. 처음에 남편이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저 편한 외국친구 처럼 생각했다. 남편이 계속해서 편하게 해주고 변함없이 잘해줘서 결혼을 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 오기전 중국 티베트에서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다.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드라마속에 배경은 한국의 옛날 전통적인 모습들이어서 신기했다. 그래서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실제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직접 한국에 와서 보니 길거리가 깨끗하고 발전된 모습에 많이 놀랐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티베트와 상당히 비슷한 문화도 많았다.

처음에는 한국이 낯설고 친구도 없고, 바쁜 생활 속에서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고향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니 더욱 힘이 들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외로울 때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자주했다. 고향에 가서 맛있는 차 한잔을 마시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아무에게도 간섭 받지 않고, 나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었다.

한국 음식문화는 밥, 김치, 생선, 고기, 야채 등을 담백하게 만들어 먹어서 맛이 있다. 티베트 음식은 티베트치즈, 티베트 보리 가루, 국수, 쇠고기, 야크고기, 양고기, 야채 등을 자주 먹기 때문에 다른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중국 티베트와 한국의 문화는 다른 것도 많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단지 사랑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은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해산물이 풍부하다. 그 중에서 꽃게와 낙지는 볼 때마다 가슴이 떨 정도로 무서웠다. 왜냐하면 티베트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산물들을 보거나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티베트에서는 하천에 물고기가 살지만 잡지 않는다. 종교적, 문화적인 이유로 민물고기도 먹지 않는다. 그 예로 티베트에서는 아이가 죽으면 항아리에 넣어서 하천에 흘려 보낸다. 항아리 속에 있는 아기를 물고기가 먹기 때문인지 티베트 사람들은 민물고기도 거의 먹지 않는다. 티베트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윤회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해산물을 보지 못한 티베트사람에게는 생선을 먹는 일이란 힘든 일이다. 특히 생선의 비린내는 참기 힘든 냄새였다. 비린내가 심하면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생선을 먹지 못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했다. 특히 식사 때마다 가족들과 자주 의견대립이 있었다. 티베트에서는 생선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난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먹지 못하는 음식보다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챙겨주었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생선이 돼지고지 쇠고기보다 몸에 더 좋은 점도 많고 좋은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조금씩 생겨났다. 고등어, 갈치, 멸치 등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생선을 조금 더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음식을 먹는데 많은 시간도 필요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려면 생선을 잘 먹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부터는 여러 가지 생선을 먹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은 가족들에게 생선 요리를 자주 해준다. 생선을 조금씩 먹게 되니까 입맛에 점점 맞는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해산물을 먹어 볼 생각이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 시어머니는 무척 깨끗하신 편이다. 서로 오해도 하고 시어머니와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운적도 많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 곳이 없었다. 한국에는 고향친구들도 없고 티베트는 너무 멀어서 자주 가기도 힘들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다보니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챙겨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꼭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다문화센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들었다.

외국어는 처음에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러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나라사람들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있다. 모든 일들은 재미가 있어야 노력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 단어외우기, 많이 말하기, 듣기, 읽기이다.



한국어를 말하면서 조금씩 틀리는 부분을 정리해서 공책에 적었다. 그리고 발음을 체크하면서 녹음하고 다시 듣고 다시 말하기를 반복하여 틀린 발음을 교정될 때까지 연습했다. 한국어는 오래달리기와 같아서 조금씩 자주 공부를 해야 효과가 많이 생긴다.

초등학교때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착하고 멋진 분이셨다. 그래서 선생님을 볼 때마다 나도 커서 선생님처럼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중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마음에 변화가 생겨 공부를 열심히 못하게 되었다. 사실 성적도 좋지 않아서 더욱더 학교에 가기 싫었다.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시에 나가서 일을 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한국에 와서 고향에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학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도 알았다. 학력이 낮으면 할 수 있는 일들도 적어진다. 그래서 늦었지만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 온 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사실 필기시험에서 한국어가 서툴러서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쉽게 취득을 했다. 면허증을 취득하면서부터 한국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슨 공부부터 시작할지도 몰랐고 어떤 공부를 먼저해야하는지 몰랐다. 운전면허시험을 통해서 한국어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 후에는 중학교졸업시험인 검정고시를 남편의 도움으로 시작했다.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도전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 꿈같은 일이라는 생각에 혼자 공부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남편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운 시험이었다. 남편이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다주고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시험공부를 잘 할 수 있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학원도 다니지 않았다. 힘들게 혼자서 공부를 해야만 했다. 모르는 것은 모아서 남편이 쉴 때 물어보았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시험에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에 중학교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합격 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입학한 한 날에는 마음 한편으로는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과 같이 고등학교에 같이 입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평평 울고 싶었다. 항상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되었다. 한국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한국에 오기 4년 전에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식들 중에서 나를 가장 예뻐하셔서 잘 챙겨주셨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만약에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버지에게 학교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 하늘 어디에선가 분명히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공부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남편도 많은 부분에서 응원해주었다. 꿈일 것만 같았던 시험에서 합격해서 너무나 행복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다문화지원 센터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었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살아가는데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남편은 공부실력은 종이 한 장차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공부 하고 있을 때는 힘이 들었지만 지나고나니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떠올랐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현재의 나의상

황이 바로 딱 이런 상황이다. 사실 한국에 처음 온 후에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꿈도 없었다. 한국에 와 공부를 시작한 후로부터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작은 꿈들이 생기게 되었고 늦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앞으로의 꿈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는 것에 큰 희망을 가지고 되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쳐주시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나를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지원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남편과 시어머니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셋! 무슨 소리가 들리니?

신 채 연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나는 그날도 새로운 친구 진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큰 눈에 머리를 양 갈래로 묶은 첫눈에도 참 예쁜 아이였어요.

“네가 진아구나!”

반가운 마음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진아는 눈만 말뚱말뚱거리며 나를 뻔히 쳐다봤어요. 하긴 처음 만난 날이니 서먹할 수도 있지요.

내가 하는 일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예요.

아무래도 한국인 부모를 둔 아동들보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한국어에 대한 노출을 적게 접하다 보니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아동들과 함께하는 동안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나를 기다리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기쁨과 보람이 더 큼니다. 항상 새로운 아동을 만나는 날에는 그래서 더 설레지요.

한국인 아버지와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진아는 또래보다 말이 느리다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었지요.

“우리 진아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요.”

원장선생님도 진아가 쭈뼛거리며 수줍은 표정을 짓자 저에게 진아를 얌전한 아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걸 가지고 가 볼까?”

여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을 챙겨가고, 목욕놀이 교구, 소꿉놀이 교구, 과일과 야채 모형, 부엌 놀이 교구등 저는 진아를 만나러 갈 때마다 진아의 관심을 사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진아야, 선생님 사과 주세요.”

30개월인 진아에게 과일 중에서 사과를 찾는 건 쉬워 보였어요. 하지만 진아는 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내 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아야, 수박은 어디 있을까? 수박 주세요.”

진아는 내가 손을 내밀자 그제야 바나나를 집어 내 손에 올려 주었어요.

“아니. 바나나 말고 수박주세요.”

또 다시 손을 내밀자 이번엔 포도를 집어 올려 주었어요. 나는 사과 모형을 들어 진아에게 보여주며 “사과 여깃네.” 하며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진아에게 “사과 주세요.” 라고 말했지요. 진아가 얼른 내 손에 올려준 옥수수를 보며 전 아무 말 없이 그냥 씹,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진아를 만나 언어지도를 하다 보니 그렇게 예쁜 진아를 만나러 가기 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0개월도 지났는데……. 아직 엄마, 아빠라는 말도 못하고 수업을 진행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무발화 아동’ 진아를 만나 언어지도를 하고 나면 교육일지를 쓰지요.

언제나 진아의 교육일지에는 ‘몸짓을 통한 의사소통’ 이라는 말이 되풀이 되고 있었어요. 노래는 잘 못 하지만 울동을 따라하고 물이 먹고 싶을 때는 컵을 들고 정수기 앞으로 갑니다. 선생님과 헤어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배꼽인사를 하고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통에 넣기도 합니다. 벗어놓은 옷을 옷걸이에 걸고, 자기 자리에 가방을 넣고 신발장의 자기 사진이 붙어 있는 자리에 신발을 정리해서 놓아둡니다. 진아는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단지 말이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나는 진아와의 수업을 위해 교구를 준비했어요. 저의 목표는 1음절이라도 좋으니 진아의 입에서 감탄사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풍선을 불어 던지기 놀이도 하고 풍선 속에 콩알을 넣고 불어서 소리 나는 악기도 만들어 보기로 했지요.

“후, 후! 진아야, 후, 후 불어보자.”

‘후’ 라는 1음절이라도 소리를 낼까? 조마조마 진아의 입을 쳐다보았지만 야속하게도 진아는 풍선을 손에 들고 제게 내밀었어요.

‘재미가 없나?’

이번엔 까만 콩알 서너 개를 풍선 속에 넣고 다시 풍선을 불었어요.

“완성! 진아야 이렇게 흔들면 소리 나지?”

후두두 두둑, 후두두 두둑, 후두두 두둑!

콩알이 풍선 속에서 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근사한 악기를 만든 것 마냥 나는 신이 나서 풍선을 흔들었는데 진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난 일부러 진아의 귀에 대고 풍선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진아는 내 눈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아의 눈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더 세게 풍선을 흔들었어요. 풍선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왼쪽 귀에도 대고 흔들어 보고, 오른쪽 귀에도 대고 풍선을 열심히 흔들었지만 진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의 아이라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을 텐데요.

혹시 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난 진아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지요. 진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쩡그리며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난 화면만 나오게 하고 소리를 꺼서 보여주었어요. 진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소리를 크게 해도, 작게 해도, 꺼도 똑같았어요. 진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화면속의 그림이지 소리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 진아가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내가 한 몸짓을 보고 반응을 보였던 게 생각났어요.

손을 내밀어야 물건을 주고, ‘안녕’ 이라는 말과 함께 손을 흔들어야 진아도 손을 흔들었고, 가방을 주어야 제자리에 놓고, 쓰레기를 가리켜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진아를 만나 지도를 시작한지 한 달 만이었어요.

진아의 엄마아빠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난감했어요. 단지 풍선소리에 반응을 못한다고 해서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꼭 검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아 어머니는 캄보디아출신의 다문화여성이라는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어요.

병원, 청각, 검사. 이 모든 단어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듣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 일거예요.

난 진아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기로 했어요. 예쁜 딸이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놀랄지 짐작하고도 남았어요. 청각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검사요? 그런데 우리 진아가 가끔 엄마 소리도 하고 아빠 소리도 하는데 요…….”



진아 아버지께서는 믿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딸에게 엄마,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은 건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이니깐요. 의미 없이 낸 소리를 엄마로 듣고 아빠로 들으며 기다려 온 것 일수도 있지요.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아를 위해서요.”

검사가 늦어지면 혹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아버님과 의 긴 상담을 마치며 병원예약을 하셨다는 답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약속된 날에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진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척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멀쩡한 아이를 왜 검사를 하느냐며 역정을 내셨다고요.

“저도 말이 느린 편이었대요. 진아도 아마 저를 닮았나봐요. 진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검사하지 말라고요. 검사도 꽤 어렵다는데 어란애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병원에 안 갔어요.”

다시 한 번 허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6개월이 지나가버렸어요.

수업을 하며 진아가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언어치료학과 교수님께 조언을 구한 뒤 다시 한 번 진아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치료가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을 진아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내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조금씩 문제를 인정하셨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서울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려고 예약했습니다.”

지난 가을 진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진아는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수술은 몇 달 뒤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각에 문제가 있으니 들을 수 없었고, 듣지 못하니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아의 어머니가 저와 상담을 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어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말속에서 엄마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듣는 내내 나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진아한테 미안해요. 선생님…….”

“수술 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 얘기, 선생님 얘기도 할 거예요.”

먼 나라에서 온 어린 엄마에게 장애가 있는 딸은 참 아픈 손가락일거예요.

보청기를 낀 후 진아는 조금씩 듣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처음 듣는 소리가 진아에게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보청기를 착용 후 진아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언어치료실을 다니게 되었어요. 얼마 전 진아가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지요.

“선생님 진아가 1월 달에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은 퇴원해서 다시 4월부터 치료실에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요.”

곧 진아를 다시 만나 언어지도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다섯 살이 된 진아에게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어떻게 들릴까요?

어떤 소리가 가장 듣고 싶었을까요?

진아의 부모님은 부쩍 진아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진아야!”

“네에.”

짧은 대답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진아를 만나는 동안 설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진아를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장난감 전화기 교구를 쳐다보며 가만히 진아를 떠올려 봅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 보, 세, 요?”

“췌! 무슨 소리가 들리니?”



가만히 귀 기울여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와 마주하는 진아를 생각하며 오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지도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아동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 베트남 새댁의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를 보며

배 말 순  
(대전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수업을 나가기 전, 회의 시간에 다문화가족의 시아버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한국어만 가르치지 말고 예의 좀 가르치라.”는 전화를 하셨다고 한다. 한국어선생님들은 한국어 외에도 문화수업도 함께 하기 때문에 한국의 예의에 대한 수업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어휘 확장도 되고 중급, 고급단계로 올라갈수록 관용표현과 속담, 문화, 역사 수업도 함께 진행되어야만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한국어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화를 하신 분은 어떤 대상자의 가족일까? 내 대상자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였다.

방문수업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베트남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리 집에서 지도를 보고 길찾기를 한 다음에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집에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함께 계셨고 6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얼굴이 무척 고우신 시어머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시아버님은 그냥 인사만 하셨다. 식구들이 환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좋았는데 시아버님은 초기면접지





를 작성하고 배치평가를 하는 내내 별 말씀이 없으셨다. 대상자는 참 솔직하고 밝았다. 말의 가감이 없고 진솔한 모습이 나와 잘 맞을 것 같고 수업이 잘 이루어 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또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언어는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라 대화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시어머니께서도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다. 약간의 긴장을 하였었는데, 별 탈 없이 정해진 수업을 하고 나오는 데 시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다. “네 말씀하세요.” 하니 “우리집 며느리가 존댓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버릇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친구가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점이 마음 상하셨나?”고 여쭙어 보니 평상시에 며느리가 말을 할 때, “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했다고 한다. “그럼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니 아니라고 안 해봤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 줄 모르겠다고 하셨다. “아버님, 베트남과 한국은 언어문화가 달라서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높임법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으니 선생님이 책임지고 우리며느리 높임법을 가르치고 예의 좀 잘 가르치라고 당부를 하셨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아버님과 헤어졌다. 다음 수업 시간에 가서 대상자에게 이르기를, 아버님께 식사를 드릴 때는 “아버님, 진지 드세요.” 또는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대상자에게 가르쳤다. 그랬더니 이 친구의 말이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께 부탁했어요?”하고 물었다. 아니라고 선을 긋고 서로가 조심하면 가족 모두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수업을 하면서 말의 소통과 문화충돌로 인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자가 차츰차츰 가족들과도 가까워지고 한국어 실력도 점차로 늘어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아버님의 오해도 조금씩 줄어들고 손녀와도 잘 놀아주시고 며느리와도 그런대로 편하게 지내셨다.

시어머님은 수업하러 갈 때마다 항상 간식과 과일, 차 등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10분정도 말씀을 나누시고는 손녀를 업고 공부하라고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부터는 이런 간식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아니라고 우리 며느리 공부 열심히 가르쳐 달라고 당부하시면서 나가시곤 하셨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도 쑥쑥 늘었다. 수업하는 두 시간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가기 전에 예습을 해 놓고 숙제도 다 해 놓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써 놓았다가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문장들도 적어 놓고 사전을 찾아보곤 하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전화해서 물어보곤 하였다. 베트남 친구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한국의 음식문화와 의생활, 예절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가족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특히 시어머님과 사이가 좋아서 모든 것을 시어머님께 의지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있었다.

수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끔 한국의 음식도 만들어 보곤 하였다. 한 번은 계절 음식으로 진달래 화전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화전을 만들 거예요. 꿀 있어요?” 하니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장이 바로 집 앞에 있으니 시장에 다녀올게요.”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10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비닐봉투에 무언가를 담아왔다. “뭐예요?” 하니 “선생님 꿀이에요, 우리 파전 만들어 먹는 거지요?” 한다. “아니요. 우리는 파전이 아니고 화전을 만들 거예요. 꿀은 필요 없고 진달래꽃과 찹쌀, 그리고 꿀이 필요해요.” 했다. 우리들은 대상자가 사 가지고 온 재료들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화전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릇에 담고는 식기 전에 이웃아주머니에게도 나누어 드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 전에’라는 문법공부를 하였다. 베트남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음, 격음, 경음, 그리고 동음이의어와 발음이 비슷한 글자들이다. 대상자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어휘를 잘못 받아들이면서 가끔은 재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였다.





대상자는 친정아버지가 안 계셔서 일찍 철이 들었고 행동 또한 빠르고 시간도 철저하게 잘 지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쁜 것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일환으로 우체국에 가서 택배 부치는 것도 하고, 은행에 가서 통장도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면서 은행 관련 어휘를 익히고 은행 업무를 직접 해 보기도 하였다. 때로는 치과예약이 있으면 함께 가서 설명도 하고 보건소 이용법도 알려 주었다. 특히 육아로 인해 힘들어 할 때는 먼저 아이를 키워 본 사람으로서 경험과 상식을 알려주었으며, 필요한 정보제공도 하였다. 이유식도 간을 하지 말 것과 재료와 시기 등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보았다. 베트남 대상자의 장점은 솔직하고 무엇이건 잘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였다.

즐겁게 수업을 이어가던 중에 시어머니께서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시며 힘들어 하셨다. 병원에 가 보시라고 하였더니 소화기 잘 안되고 배가 아픈 것이라 별 거 아니라고 말씀 하셨다. 일주일이나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 다니시더니 큰 병원에 가서서는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 시어머니께서 당장 입원하시니 아직 살림이 서투른 베트남 대상자는 어머니의 병환과 함께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많았다. 입맛이 까다로우신 시아버님의 식성을 맞추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솜씨 좋은 시어머니의 음식 맛을 배울 기회가 너무 짧았다.

시어머니께서는 깔끔하고 음식솜씨가 좋아 종종 나에게 맛난 것을 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고, 그 분의 따뜻함이 참 좋았는데 마음이 무척 아팠다. 병문안을 가기 전에 대상자의 남편에게 어머니께 홍삼제품을 드리라고 전달하고 ‘며칠 후에 병문안을 가야지’ 했는데, 그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갑자기 시어머니를 잃고 시아버님의 식사시중과 다른 집안일들로 인해서 공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잃은 충격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시아버님의 화가 잦았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국어수업도 좋지만 선생님이 몇 가지의 반찬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아버님 입맛에 맞는 물김

치를 담가 보자며 어머니의 솜씨를 기억하면서 만들었다. 시아버님께 드리니 마다하지 않으셨다. 또한 시어머니가 담가 놓으셨던 된장과 간장을 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부조림과 생선조림 등을 같이 만들어 보았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였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여 주면서, 주어진 일이니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였다.

어느 날은 수업을 하고 나오는 길에 평상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이 나를 보자시면서 며느리가 옷을 너무 짧게 입는다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날씨가 더워서 그랬을 거라고 하고, 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였다. 자칫하면 대상자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아버님과의 관계가 멀어 질 수도 있어서 걱정스러웠다. 다음번 수업에 대상자에게 웃으면서 옷차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깐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하여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상자의 요리솜씨도 늘고 한국어 실력도 늘면서 점차 한 가정의 주부로,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 또한 이 친구로부터 베트남 요리인 여주요리, 쌀국수, 월남쌈 만드는 것 등을 배울 수 있었고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시아버님의 즐거움은 결혼한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손녀딸과 함께 노는 것이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애교도 늘고 말도 한 두 단어 하면서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수업을 가면 전과는 다르게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며느리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도 하셨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종종 용돈도 주셨다. 대상자가 가장 예뻐던 것은 시아버님의 밥상을 신경 써서 차려드리는 것이었다. 그 점을 시아버님도 알고 고마워하셨다. 버릇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셨던 분이 그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며느리를 의지하고 예뻐하시는 점이 전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대상자가 취업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다. 손녀를 지나치게 예뻐하시는 할아버지는 아이가 조금만 다치고 와도 바로바로 어린이집에 쫓아가는 것이 문제였다. 육아문제로 시아버님과 며느리 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나의 일이었다.

대상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빠졌다. 밥 해먹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아버님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하고, 퇴근하여 돌아와서는 다시 집안일을 반복해서 하니 많이 지쳤었다 보다. 하루는 시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집에 가 보니 대상자가 고집이 너무 세다고 화를 내셨다. 자기감정에 솔직한 대상자를 고집이 세다고 역정을 내셔서 잘 말씀을 드려서 화를 풀어드렸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 년의 시간이 지나서 수업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다. 대상자는 친구와 함께 베트남 음식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주었다. 시아버님 또한 고맙다고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다. 방문지도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다. 모든 수업과정이 끝나고 대상자에게서 가끔 전화가 온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셔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가보면 친정엄마가 오셨다거나 시아버님과의 작은 일들, 남편과의 일들, 또는 국적 취득 문제 등을 상담해 온다. 대상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들어서 좋은 해결점을 찾아보았다.

어느 때는 집에 가서 보면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반찬을 사다 반찬통에 넣어 놓으면서 “선생님, 저 나쁜 며느리죠?” 한다. 그것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말한다. “맞아, 나쁜 며느리아! 바빠서 그렇구나!” 대상자는 나와 만나 공부했던 시간들을 포함하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직장에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시아버님도 잘 모시고 산다. 막내며느리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어른스럽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처음의 서툰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랑스러운 대전의 아줌마로 살아가고 있다.

“○○○야! 우리 만나서 지난번에 놀러 갔었던 피서지에 다시 한 번 놀러가자!

장하다. 우리의 친구, 베트남 아줌마!”





## 한국어선생님이 아니야! 엄마야

연 봉 월  
(대전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가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으로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키르키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딸들을 만나 한국어를 가르치고 대전의 역사와 문화가 숨을 쉬는 곳을 찾아 체험 활동을 하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처음에 한국어 방문교사로 다문화가정을 방문할 때 긴장되어 가슴이 쿵쾅거리고 ‘말이라도 안 통하면 어찌나?’하는 걱정에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기까지 하였던 일이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저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2명의 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만난 쩌티탄은 현재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으며 넷째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탄이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하던 말이 떠오르네요.

“선생님이 아이는 3명을 낳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을 닮아서 셋째아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은 저보다도 1명의 자녀가 더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지만요.

물론 첫 만남을 가졌을 당시에는 16개월 된 첫째아들 도균이와 둘째인 딸 나

경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맘머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절과 기제사일에는 상을 차려 예를 갖추어 주는 멋진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 음식에 올리는 법도 차근차근 알려 주셨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방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 탄이 들려 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 듣기와 말하기가 미숙하여 생긴 시어머니와의 재미난 일화가 생각납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은 남편의 양복을 사러 갔어요. 남편이 양복을 입고 어머니와 제 앞에 섰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 아들 맛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아들을 먹는 거야! 어떡하지?’ 그때는 ‘멋있다!’와 ‘맛있다!’를 구별할 수 없었어요.” 수업을 시작하고 얼마 후 탄은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계실 때에는 식혜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신은 지금 만들 줄 모른다고 한국 제사상에 올리는 식혜를 만들고 싶는데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며느리들도 잘할 줄 모르는 식혜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싶다는 탄의 마음에 저는 탄이 베트남사람이라는 생각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옛기름을 가지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식혜를 만드는 법은 옛기름을 물에 걸러 가라앉히고 밥은 약간 고슬하게 지어 놓습니다. 지어 놓은 밥에 가라앉힌 옛기름물을 부어 8시간 삭힌 후에 밥풀이 동동 뜨면 불에 올려 설탕과 생강을 넣어 끓여 주면 됩니다. 식혜를 실제로 만들고 나니 한국요리에 자신이 생겼나 봅니다. 한국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 만들기에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되어 고추장도 함께 담그고 메주로 간장과 된장을 담그기도 하였습니다.

탄에게는 베트남에서 윗동서인 시아주버니의 부인이자 고향에서는 사촌 언니인 형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맘머느리인 사촌언니는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관여





를 하지 않아 탄이 명절에도 혼자 음식을 장만하고 시어머니기일에도 혼자서 제사 음식을 다 차려야 하였습니다. 혈우병을 앓고 있어 수요일마다 병원에 가야 하는 큰 아들 도균이와 한 달 된 둘째아이를 데리고 추석 차례상을 혼자서 차려야 한다는 탄의 하소연을 들은 저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탄! 남편하고 장을 보아다 놓으면 추석 차례음식을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 줄게요” 추석 이틀 전에 탄의 집으로 가서 추석 차례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부치고 노란무, 느타리버섯, 맛살, 고기를 쫄면 꼬치전을 부치고 두부와 돼지고기를 치대어 동그랑땡을 부치며 3적도 준비하면서 조상님께 올릴 차례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도 탄은 추석 음식을 준비하던 그때와 둘째아이를 낳고 나서 끓여주신 호박죽이 정말 맛있었다며 추석 때나 아이의 생일, 그리고 스승의 날이 되면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집 근처에 오는 날이 있으면 꼭 들러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2014년도에 만난 타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년 동안 한국어교사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대상자들은 제 아들, 딸보다는 최소한 1살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오는 제 딸하고 동갑으로 20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딸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짠하며 몽클해지는데 타오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살이라면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밝게 웃으며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신나게 놀 나이일 텐데, 타오는 벌써 고향을 떠나 한 남자의 아내이자 시부모님의 며느리이며 장가 안 간 시아주버니의 제수씨로 살아야 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출산 후에도 살이 찌지 않고 왜 그리 말랐는지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혹시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늙은 호박을 사다가 찹쌀을 가루 내어 죽을 끓여 계속 가져다 주었습니다. 타오는 정말 맛있다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신경 써 주지 않는데 선생님이 자신을 챙겨준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표현합니다. 한번은 타오는 아이를 안고 외출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다른 베트남 친구들에게는 다 있는 유모차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아기용품 중에서 아마 유모차가 가장 고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품도 몇 십만 원씩 할 텐데 남편은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사 줄 기미가 없으니 타오는 힘들어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 뇌리 속에 친정조카가 사용하던 유모차가 떠올랐습니다. 조카 두 명은 유모차를 탈 나이가 지났거든요. “올케, 유모차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가르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에 주고 싶은데 어때?” “형님,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유모차를 필요하지 않아 베란다에 세워 놓았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가져가세요.” 친정조카가 사용하던 유모차를 가져다가 타오에게 전달하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타오를 딸로 걱정하는 친정엄마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타오는 저를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해 주고 가양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같이 떼보기도 하였습니다. 꽃피고 녹음이 우거진 5월에는 대전 동구에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우암사적공원으로 유모차에 명건이를 태우고 타오와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대전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는 조선시대에 유명한 중요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양동에 위치한 우암사적공원에는 대전시 유형문화재 1호인 ‘송자대전판’과 4호인 ‘남간정사’가 있어 대전 동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남간정사’는 공원을 들어서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림과 제자들을 모아 학문을 익히던 곳으로 우암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유림들이 목판을 새겨 송자대전을 펴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남간정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학교이었던 서원 건물인 인함각, 명숙각, 이직당 등을 거닐며 우암 송시열선생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집에서만 한국어 수업을 하다가 야외로 나가 맑은 공기와 자연을 접하고 집 가까운 곳에 역사와 문화를 만나게 되니 타오는 정말 즐거워하며 해맑은 웃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 세계속의 행복한 아이 “글로벌 해피아이”(자녀지원사업)

강기연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자녀의 전 영역의 성장발달을 위해 지적영역, 자아·정서·사회성영역, 시민영역, 문화역량영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자녀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해피아이”(세계 속에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금산에 정착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의 수는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 2011년(549명), 2012년(616명), 2013년(667명) 2014년(656명)으로 매년 증가 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중 취학 자녀 중 초등학교생 자녀는 226명, 중등 43명, 고등학교 27명으로 총 296의 다문화자녀들이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더불어 중요한 사업으로 실태조사 시 1순위 한국어교육, 2순위 자녀양육이나 교육지원 3순위 일자리 알선 등으로 응답하여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다.

작년엔 1순위인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깃잎농사나 취업으로 인하여 낮에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하여 야간을 이용한 찾아가는 한국어 이동 수업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은 낯선 환경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게다가 가족 갈등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혼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나 봅니다. 언어의 모방 상대인 어머니라는 자리의 부재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 외면당하고 집단 따돌림을 받는 등 자녀교육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방문교사로 활동하면서 물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 이민자인 제 딸들을 떠올려 봅니다. 한국어 방문교사라는 자리를 벗어나 딸들에게 한국인 친정엄마로서 한국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기도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딸들에게 여리고 작은 손이나마 그들에게 자신 있게 내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국어교사로 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혹은 제가 외로운 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을 해 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따뜻한 정이 가득한 고향의 엄마처럼 언제, 어디서나 따스한 손길과 관심, 사랑을 듬뿍듬뿍 담아 주겠다고.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탄! 타오! 너희 곁에 있어 줄게”





자녀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 야간 한국어 이동 수업 시 엄마와 함께 유치부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따라오는 자녀를 위한 독서지도를 했던 경험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치부와 초등부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함께 같은 생각을 느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표현 할 수 있는 동 학년대의 친구들이 수업을 하면 참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학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다문화 거점학교를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올 해는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 집합으로 일반아동과 다문화 학생의 통합교육으로 학교 방과 후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사춘기 이전의 학생들에게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하여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벌 해피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자아·정서 부분으로 7차시로 어렸을 적의 나, 내가 보는 나, 단점속에 숨은 장점, 감정의 세계 탐구하기, 감정표현 동화 독서토론, 좋은 감정 표현하기, 나와 타인의 감정 알아차리기, 다양성의 가치와 고유성 이해하기, 사회성 5차시로는 나의 대인관계, 올바른 의사소통하기, 나, 너 전달법, 경청, 공감기술, 소통관련 동화 독서토론, 생활습관 5차시로는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올바른 게임사용 습관 인식, 내 취미를 돌려 줘, 시간 관리 중요성, 좋은 습관을 가져요 등, 학습 문화 9차시로는 우리나라 축제 알아보기, 이웃사촌 글로벌 다문화가족, 지구촌 명절 알아보기, 나는 글로벌 문화 연결자, 진로 영역으로는 나의 관심분야, 우리 마을 직업 사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직업 알아보기,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녹색직업 알아보기, 나의 롤모델 찾기, 시민교육으로는 숨어있는 나의 자원 찾아보기, 자원봉사는 왜 필요할까요? 나의 꿈을 위해 계획서 세우기, 나도 존경받는 리더가 될 거예요, 나눔, 나도 실천 할 수 있어요. 라는 교육일정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사춘기의 도래로 인하여 감정의 폭을 크게 경험하는

다문화 가족 아동들은 특히 이 시기에 친구들과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 민감해져'나를 이해하기, '다양성의 가치와 고유성 이해하기'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과 욕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다문화 가족 특유의 다양성의 가치와 힘을 탐색함으로써 집단따돌림, 학교 부적응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그 기준에 찾다보니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 해 다문화 거점학교가 정해지기 전에 사업을 진행해하는 시기여서 작년에 다문화거점학교였던 초등학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사전 모임 시 작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업을 한 결과 유치부~초등부까지 수준차이가 많이 나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 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고학년에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를 선정하여 교감 선생님, 행정 실장님, 교무 과장님과 상의를 하여 6학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으나 다문화자녀가 4임에도 불구하고 2명은 월요일 태권도장, 1명은 기초반, 수업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전체 7명중 일반아동 기초반을 제외한 다문화자녀1, 일반자녀 2명밖에 없는 상황이라...제시1, 자기의 의견을 쓸 수 있는 학생. 제시2 일반아동보다 다문화자녀가 많은 반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정보과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이유일까? 학교의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날이었다. 솔직히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 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학교 현실이 이정도일까 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지치지 않고 서로 서로 도와주며 끝까지 재미있게 원활한 수업을 위해 그동안의 수업 상황설명을 교장선생님께 드렸더니 기초반 2명이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수업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자세, 생각 등이 올바른 길로 성장, 변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 말씀 하셨던 분이 바로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서센터팀장, 담당 선생님이 한번 학교방문을 해주십사 하여 찾아뵈었더니 어제 학교 정황을 듣고 우리 학교에서 할 건 아니다. 더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그 곳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들 수준에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안했으면 좋겠다고...





옆에 있는 교감선생님이 갑자기 바뀐 교장선생님의 태도에 더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얼마 남지 않은 교직생활에 혹시나 외부에 초등학교의 이미지가 실추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더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렇지! 교육계에 몇 십 년을 몸담아 일하셨던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을 5회에 하차하시자하는 것조차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무조건 안했으면 좋겠다는 일관된 모습에 설득하고 또 설득을 드러도 납득이 되지 않아 결국 뒤돌아 오면서 정말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교장선생님에 대한 씩씩함과 안타까운 마음만 들뿐이었다.

그래도 어울림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사회의 일꾼으로 또 나가서는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춘기가 오기 전 유치부, 초등부 교육이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태도가 지속된다면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격차가 심한 오늘보다는 함께 모두 공동의 마음으로 한마음 모여 뜻을 이룬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초반에 이렇게 벽에 부딪힐 줄이야... 생각보다 학교의 벽이 높은가? 참 허탈한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다. 그 날 그 곳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바로 오는 날 금나라 때 동해원이 지은 <서상>에 나온 구절 “참으로 이른바 좋은 시기는 얻기 어렵고,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호사다마”라는 한자숙어로 모든 걸 잊기로 마음을 위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몇 회 수업을 진행 해 왔던 터라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다문화연구학교가 정해져 있었고 학교마다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다문화연구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담당선생님께 “글로벌 해피아이”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며 다문화자녀와 일반 자녀가 함께 통합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급한 마음으로 전화로 설명해 드렸더니 안 그래도 연구학교로 지정되다 보니 프로그램 구상 중이었는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일정을 잡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 옛 속담이 하나 틀린 말이 없는 것 같다. 바로 1차 대표 과제 컨설팅 일정은 잡혀져 있고 수업은 중단되고 새로운 학교를 찾아서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참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때라서 사업 담당자로서 참 마음이 무거웠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그때 일이 제때에 잘 연결이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결과 컨설팅하러 오셨을 때 교수님께 대체적으로 대표과제로서 다문화자녀와 일반자녀의 통합교육으로 방향설정이 잘 짜여져 있고 목표인원 10여명으로 목표 인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만족도와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는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 해주셨다. 그 학교의 경우 기초반 2명이 있어 언어 발달지체 등 정서적인 부분이 일반자녀와 수준 차이가 많이 나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특성상 월등한 자녀들에 비해 기초반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더 특성화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바로 수업을 연계하여 진행 할 수 있어서 담당자로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칭찬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세부추진 교육 운영 시 추가할 내용으로는 정서적인 부분이나 전달법에서는 부모와 나누는 소통법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컨설팅에 함께 참석한 다른 선생님께서는 “사춘기엔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소통법이다”라는 웃스갯 소리란 이야길 하셔서 한바탕 웃기도 하였다. 수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좋은 습관가지기→성공하는 좋은 습관 가지기, 명절 알아보기→지구촌 명절과 민속놀이, 삶의 질 향상 직업 알아보기→부모님 직장 탐방하기(자존감, 자아정체성 향상), 진로 탐색교육 필요성으로 방학을 활용한 잡 월드 방문, 시민교육에서는 한국인의 뿌리, 역사 찾기 등 통일안보 교육이나 민족 정체성 교육이 추가되





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대한 적십자사와 연계-생활안전교육이 들어가면 부모님 만족도 더 높을 것이고, 컴퓨터(ITQ, 워드, 엑셀, 프리젠테이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면 글로벌 해피아이에 가까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더 추가적으로 모든 수업이 진행 된 후 토론과 글쓰기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모님께 그동안의 감사함과 하지 못했던 말을 표현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편지 낭독 시간과 그동안의 활동사진 등을 파일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도 요번 기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동안의 컨설팅을 해주신 교수님과 다르게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도 그리 많지 않은데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조언을 잘 해주실 분을 만나게 되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컨설팅 해 주신대로 올 해 수업을 차근차근 잘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과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들을 만들어 주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걸 확신한다.

그 외에 자녀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교내에 다니는 다문화 자녀들의 차별성 없는 학교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의 자신감과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한국 생활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베트남과 중국 다문화 강사들이 유치원, 어린이 집, 초등학교 등 다문화 인식개선을 5월 세계의 날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자녀와 학생들 교사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많은 호응을 얻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자녀지원에 있어서 다문화 강사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저 멀리 타국에서 남편 하나만을 믿고 한국에 와보니 듣는 거하곤 판이하게 다른 환경과 문화, 모든 것들이 생소하게 느끼지만 모국에 계시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정착하여 생활해야 하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이며 시부모님과 관계속에서도 잘 이겨내며 어느새 자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히 일하면서 엄마의 나라를 알리는 선생님이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는 많은 다문화 자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베트남, 중국 결혼 이민여성들이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필리핀, 일본, 다양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역량 있는 결혼 이민여성들을 발굴해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초·중등학교 교실의 다문화화를 위하여 일반자녀와 다문화 자녀가 함께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삶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자녀들이 학업중단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로는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문제가 23.8%가장 많고, 가정형편의 어려움 18.6%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중단한 경우도 9.7%인 것으로 나타나고 (여성가족부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13.8%를 차지했으며 차별하는 대상으로는 친구(36.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20.8%), 이웃(11.7%), 선생님(9.5%), 친척들(5.5%)순이었으며 차별 피해 시 대처방법으로는 참는 경우가 49.6%로 가장 많고, 부모, 교사에게 말하거나(27.6%),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19.7%) 등 (여성가족부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소극적인 대처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 피해 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도할 필요도 절실하다고 본다.

이런 수기를 통해서 다시한번 다문화?에 대해 다시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다문화가족하면 편견과 고정관념, 불법 체류자, 돈 벌러 온 사람들, 체류 목적으로 위장 난민 신청,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족을 저버린 냉혈한 배신자, 권





리만 요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출신국이 달라도, 종교와 언어가 달라도, 국적과 민족이 달라도, 지금 여기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모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의 신념과 생활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문화와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지닌 사람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앞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교사부터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속에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1회성이 아닌 학교 일정과 조율하여 방과 후 수업으로 1년단위로 수업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다문화이해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쓰기 어색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일부로 일반가정과 함께 차별없는 교육이 꼭 필요로 할 것이다. 앞으로는 다문화자녀들이 결혼이민여성인 엄마의 영향을 받아 이중 언어를 자연스럽게 하여 더 글로벌한 인재로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길 바라며 이 수기를 마쳐본다.

## 민들레 홀씨되어

이 효 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러분~~ 민들레 꽃을 아시나요?

아마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르는 이가 없을걸요?

심지어는 누워있는 아가들만 제외하고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유아들까지도 ‘민들레’를 모르는 이는 없을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디 흔한 봄 꽃의 하나이지요. 처음 뽕뽕뽕뽕 잎을 내밀고 그 잎이 점점 커지면서 봉오리를 맺고 그 봉오리에서 노오란 봄 색깔을 내뿜을때면 ‘아하~~ 정말 봄이구나...’

그것도 관심있게 보는 이들에게 보일뿐이요, 무심하게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알려진 장미처럼, 튜울립처럼 화려한 꽃도 아니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꽃이기에 무심히 밟아 밟히기가 쉬운 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기운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노오란 민들레를 보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신랑 하나만을 바라보고 낫선 한국땅에 와서 언어의 벽을 먼저 넘어서야 한다며 학교로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왜 이리 가슴이 시





리고 아리시지요? 분명 큰 결심을 하고 선택해서 건너왔을터인데 이 나라의 시  
 태는 무슨 환경들이 그리도 복잡하고 얽혀있지요?

시어머니에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며 그래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친구, 남편의 전 자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군대를 보내놓고 첫1개월 훈련을 마친  
 후 아들을 보고 왔으며 “아들이 기특하게 훈련을 잘 마쳤노라”고 말하며 대견해  
 하는 엄마의 얼굴로 말하는 친구, 시댁이, 또한 남편이 농사를 많이 지어 자신도  
 도와주어야 한다며 일을 해야만하는 친구들... 같은 여자라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것이 내 환경이라면 선택 나서서 할 수 없는 환경  
 들 속에서도 그녀들은 깨끗하고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녀들을 보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저 자신 또한 얼마나 그녀들의 가슴을 충분  
 히 안아주고 있는가? 아프고 웅어리진 상처들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수업 안  
 에서 얼마나 녹여주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센터 수업외에 삶의 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 할  
 머니들을 수업하는 다른 일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사셨던 시  
 대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시대였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고 이제야 내 이름 석자라도 쓰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해 보  
 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지요. 나 혼자만도 살기에 벅차게 사셨기에 자신의 안에  
 있는 감성들을 누군가가 건드려 준적이 없기에 팍팍함으로 이제껏 사셨고 삶의  
 끝자락이 그리 멀지 않은 여인들이지요.

저는 그분들을 보며 글자 한 자 한 자에 매이지 않고 삶의 끝이 행복하길 바  
 라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들 안에 숨겨진 상처들, 웅어리짐, 삶의 굴곡들을 눈물  
 로 쏟아낼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학교에 오  
 시는 것을 진정으로 행복해 하실 수 있게요... 또다른 모습으로 한국에 와서 여  
 러 모양으로 힘듬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친구들도 제가 그녀들의 감성을 자극하

고 위로해주고 학교에서 위로를 받는, 그래서 다시금 새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학교의 수업이 되게 하려 노력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번번이 제가 그녀들로 인하  
 여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녀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했던 마음을 다시 발견하고 ‘그녀들을  
 더욱더 안아주고 함께 올려주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도 저는 푸르려져가는 산책길을 걸으며 민들레들을 찾아봅니다. 이미 노오란 민  
 들레 꽃이 다 떨어지고 흙씨가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린 민들레도 있고,  
 아직 노오란 꽃을 가진채 살랑살랑 봄바람에 흔들거리는 민들레도 있네요. 곧  
 그 꽃들도 흙씨가 되어 어느 곳으로든 퍼져 나가고 다시 어딘가에 떨어져 그 씨  
 에서 생명의 싹이 터 오르고 뿌리를 내린채 자신의 생명의 존재를 나타내겠지  
 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마냥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봄날의 민들레처럼  
 처음은 미약하지만 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더 나아가 이 땅의 한국인으  
 로 노오란 꽃의 향기처럼 향기를 내뿜는 여인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  
 들~~ 이 땅에까지 떠나온,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용기에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은 이 마음을 민들레의 흙씨에 실어  
 바람에 실려 보냅니다... 부디 받아주시길~~

오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예쁜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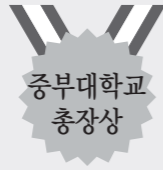


## 2 제8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작



결혼이주여성 부문





## 한국인의 대접문화와 손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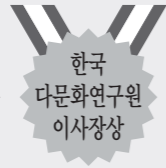
와타나베 유코  
(일본, 충남 논산)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크게 느꼈던 문화 차이는 식문화입니다. 일본에서 식사는 큰 접시에 담아서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식기를 씁니다. 한국처럼 많은 반찬을 상에 차리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셨을 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차립니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은 큰집이라서 명절 때 손님이 많이 옵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가 끝나면 나눠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어차피 남을 건데 왜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일들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 맛”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한 당시 남편이 제가 만든 반찬은 잘 안 먹는데 어머니만 드신 반찬은 잘 먹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곳이 손 맛 차이였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들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충분히 대접하는 것이 한국식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일본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매일 살림을 하는 저를 생각해서 친정 어머니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식사준비를 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날에 저녁은 밖에서 먹고 가져오 하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딸을 기다리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

래도 오래간만에 먹는 일본음식이 맛있어서 그 날은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한국에서 남편이 왔는데 신경을 쓰고 힘드실 까봐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 주려고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대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 밖에 없어?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더 많이 준비 하실 텐데”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자기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다고 말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서운했습니다. 제가 계속 일본에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까지 서운하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날 때면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고 느낍니다. 일본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고 한국요리를 많이 만들고 대접해 왔습니다. 다들 나의 손 맛을 느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나는 한국인보다 생활력이 강하다.

**박 정 순**  
(중국, 대전)

저는 한국에 온지 10년이 됩니다.

저는 이 10년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주정뱅이입니다. 아이가 4살일때 일입니다. 저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언에 견디지 못해 남편을 포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떠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가족도 날 싫다고 하는데 살아서 뭐하냐"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자살 전례가 있었던 남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돈 한푼 없고 일자리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남편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부부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담했던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더니 놀라서 하는 말씀이 "남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중국 대륙이 넓어서 그런지 그렇게 대범한 결정을 했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남자 분들도 저를 존경하는 눈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멀지 않는 미래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구소의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배추김치를 담가서 가져 갔습니다. 동료 들이 먹어보더니 중국에서 왔다면서 어떻게 김치를 이렇게 짜지 않고 싱겁지 않게 알맞게 한국사람보다 더 잘 담그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추 한 포기 소금의 비결을 말을 해주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그것까지 연구하지 않고 대충하는데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사람 같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의 그때의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의 한국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고 느꼈던 경험이 많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 집 식당에서 겪었던 일

초은차이나  
(캄보디아, 대전)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초은 차이나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중매결혼으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6년이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두 딸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문화가 낯설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식구들 그리고 다른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잘 몰라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와 한국요리를 배워서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은 이층집입니다. 2층은 가족들이 사는 집이고 아래층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작은 식당에서는 신량은 배달을 하고 음식은 저와 어머니가 같이 만들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한국음식도 좋아해서 음식 중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가게의 손님들과 친척들에게 “한국 사람보다 음식 솜씨가 좋네.”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게에 온 손님들은 저를 보고 “외국사람 같은데 김치찌개도 맛있고 한국말도 잘하고 아주 짱이야 짱!!”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이 닭볶음탕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음식은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께서는 닭볶음탕을 주문하셨고 저는 최선을 다

해 요리했습니다. 손님은 제가 요리한 닭볶음탕을 먹어보고 시어머니가 만든 닭볶음탕보다 더 맛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요즘은 실수 없이 잘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어떤 손님이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제가 실수로 된장찌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님께서는 “외국인이니까 실수 할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날마다 아이를 돌보고 식당일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어 너무 좋고 매일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어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 긍정적인 마음의 힘

최 미 혜

(필리핀, 충남 논산)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저는 최미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 같은 생각을 했던 느낌과 경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서 인지, 필리핀의 모든 것들을 무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와 지혜를 힘껏 발휘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내가 꿈 꾸어온 인생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암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기 시작 될 겁니다.

저는 현재 한국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선생님으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소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이런저런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대입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차라리 죽어 버리고 싶다”난 실패 했다, “회사 취직이 되지 않아서 절망이 가득합니다” (제가 로봇트가 된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삶을 한 번도 살아 보지 못했네요) 등... 돈이 많고, 배움이 많고, 나름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

람들은 우울증 과 자살 율이 급격히 늘어 가는 추세입니다. 한국 사회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럽게 바라보는 것도 큰 요인 이지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회의 문제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께서도 떠나셨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일의 끝에는 언젠가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행복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 죽고 싶었으나, 이 세상에 는 나 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희망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생각 합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힘들거나, 슬플 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저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을 갖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자기 가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이 결정 하게해서 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이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타인은 내 인생 위해 노력해주시지 않습니다. 살아 있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인생은 자신, 시간 , 태만, 병, 돈, 불공평, 늙음, 불행, 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엔 반드시 이길 각오로 진지하게 임해야합니다.





## 한국으로 시집온 며느리

팜피 투 이응옥  
(베트남, 충남 공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국에 온지 2년 됐어요. 그 2년 동안 한국말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많이 노력해서 한국의 풍습과 문화에 점점 적응이 되었어요.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나 풍습에 있어서 다른 것이 많지만 조상을 위해서 제사하는 풍습은 베트남과 비슷해요. 처음 한국에 와서 제사 할 때는 무슨 음식을 해야 할지 몰랐고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는지 정말 모르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혼자서 제사상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잘하게 되었어요. 좋으신 시부모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이번 추석 때는 전을 부치고 제사음식도 다 하고 상을 잘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친척들이 깜짝놀라서 “왜 이렇게 잘하냐? 한국사람 다됐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사람 같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사람 이라 느꼈던 경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트남친구들과 자주 만나는데 가끔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인의 풍습과 사고방식을 이해 하지 못해서 한국인을 비난할 때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한국사람 편을들면서 말할 때 가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들을 차별대우 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한국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고향사람들은 저에게 “너 한국사람 다 됐네 고향사람편을 들지 않고 한국사람 편을 드는 것을 보니까...”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2년 동안 한국의 풍습과 문화를 익히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만큼 행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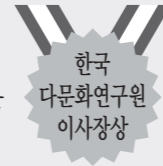
앞으로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편이랑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 외국인 유학생 부문

외국인 유학생 부문



Award of Chairman of The Board of Korean Multiculture Research Institute

## 이모! 김치 더 주세요!

도 개 리  
(중국, 대전)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도개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2년이란 시간이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자꾸 도개리가 한국사람 다 됐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번에 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교수님께 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급히 머리를 숙여 인사 하는 모습을 보고 제 한국인친구들이 엄청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개리 한국사람 다 됐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이 친구들이 볼 때는 한국인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 스스로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김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날 친한 한국인 친구가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 집을 찾았다면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저를 기억해 밥을 같이 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때 ‘김치찌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입에서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빨간 국물에 칼칼한 맛, 쌀쌀한 가을 날씨와 얼마나 완벽한지!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산속을 향해 1시간 쯤 지나 겨우 도착했을 때 본 옛날가게 인테리어는 역시 남달랐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뜨끈뜨끈한 김치찌개가 나오자마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맛이 있기는 한데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야, 더 맵게 해도 잘 먹을 수 있지?’라고 물어보고 ‘그럼요, 언니 왜요?’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이모님을 불러 ‘이모 좀 더 맵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치 반찬도 많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놀라시며 ‘더 맵게 해 달라고요? 잘 먹네~ 하하’ 라고 하며 더 맵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해주신 김치찌개의 맛은 정말 죽였습니다! 진짜 진짜로! 한 입만 떠먹어도 그 시원함에 수저를 내려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멈추지 않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모께 중국어로 ‘xièxie(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했을 때 이모가 많이 놀라시며 ‘어머 한국 사람이 아니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김치찌개는 밥도둑이자 자꾸 자꾸 맵기는 요리입니다. 또 칼국수 집에서 아삭아삭한 깍두기는 부드러운 칼국수와 제격입니다. 칼국수를 먹다가도 ‘이모! 깍두기 더 주세요!’ 라며 항상 말했습니다. 만약 분식집에서도 김치를 조금 준다면 ‘이모, 김치 더 주세요!’ 라는 말을 꼭 할 것 같습니다.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셀프 반찬인 김치를 식판에 잔뜩 놓고 먹어야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는 중간시험기간이라서 공부하느라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과 친구와 배를 채우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다가 결국 라면을 먹기로 하고 라면을 먹는 도중에 제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국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너 뭔가 부족하지 않아?’라고 물어보니 친구가 ‘응, 뭐가 부족해? 배 안 차?’라며 말했고 저는 ‘아니~ 다음에 우리 분식집에서 라면 먹자! 거기 김치 있거든’라고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대답은 들은 친구가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가 편의점 김치를 가리키면서 저의 김치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김치를 보고 신세계를 발견한 듯이 달려가 ‘김치 하나 주세요!’ 라며 김치를 사 김치와 라면을 한 젓가락 먹으며 ‘김치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 이제야 살았군.’이라고 말하며 행복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치와 한국은 떼려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김치는 모든 한국음식들과 어울리고 김치가 있어야 음식이 더 맛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김

치를 너무 좋아하게 된 덕분에 저 스스로 한국사람 보다 더 한국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따가 이 대회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갈 때도 저는 김치타령을 하겠죠? ‘이모, 여기 김치 더 주세요!’





## 나 자신이 대단하다 느낀 순간

마 귀 화

(중국, 충남 금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길림성에서 유학 온 마귀화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나 자신이 대단하다 느낀 순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하면 한국에 왔다는 설레이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할 때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의 고향에는 한국의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옷, 화장품, 음식, 심지어 티비도 한국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 학교와 중부대학교가 교환 학생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환학생으로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함께 온 11명의 학생들은 한국에 왔다는 기쁨도 잠시 밥 먹을 곳과 생활용품을 살 곳을 찾지 못하고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대전에 한번 가보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길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너가 한국어를 하니까 괜찮다며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비록 한국어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멀리 나간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한번 부딪쳐보자는 심정으로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서 501번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정거장에서 내려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보던 중 대전역 정류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리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고 대전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주위에는 온통 시장뿐이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살 곳은 없었습니다. 길을 물어볼 사람들을 찾아도 온통 할아버지, 할머니여서 물어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대전역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상가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한 상가주인이 저희한테 오셔서 “여기는 할머니들 옷뿐이니까. 이쪽으로 지하상가를 나가서 앞으로 쪽 가면 학생들이 가볼만한데가 나올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하고 그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가 보았더니 정말 저희가 찾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각자 필요한 것도 사고 구경도 하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한국인들도 처음으로 서울에 가거나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 낯선 외국 땅에서 길도 모르고 처음으로 한국어를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쇼핑하러 갔다 온 나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신 상가 아주머니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 한국에서 만나는 또 다른 나

여시배완

(베트남, 충남 금산)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여시배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찌민시 투득 기술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호찌민시를 아시나요? 호찌민시는 베트남에서 수도 그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한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르는 것이 많아서 두렵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베트남 음식과 달리 제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지 한 달 동안 밥도 못 챙겨 먹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매워서 많이 남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2kg로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운 음식들을 잘 먹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맵지만 울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날씨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비해 추워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녁에 중국인 친구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보러갔습니다. 그 때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았는데, 일주일동안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따뜻한 곳이어서 감기를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감기를 걸리고 나니 새로운 날씨와 생활환경에 빨리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우산도 잘 챙기고 다닙니다.

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날씨가 열대성 기후라 항상 더워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장도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날씨는 더울 뿐만 아니라 춥기도 해서 피부에 많이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킨, 로션도 꼼꼼히 바르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변덕스러운 한국 날씨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에서만 쓰는 말들을 익히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에 익숙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헐”, “대박”, “진짜” ... 이러한 표현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빨리 빨리” 생활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저보다 더 빨리 먹으며, 같이 길을 걸을 때 더 빠르게 걷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답답해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한국인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행동을 본받아 예의도 바르게 지키며 선생님을 만날 때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져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다면 지금의 저는 한국을 알아가고 저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해 나가며 많은 것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친해져 한국 생활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내일도 인사합니다.

시령리  
(중국, 충남 금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시령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오늘도 내일도 인사합니다' 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인사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예의에 저는 마음속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말만 하지 않고 모두 허리도 조금씩 굽혀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도 사용합니다. 이것을 보고 말은 상대방에게 존경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안녕하세요', '안녕히가세요'와 같은 인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교양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인사는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예의와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예의규범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사예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서 손님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모

든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제 머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의를 지켜야 할 상황일 때 올바른 말을 모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중국과의 다른 점이나 한국에서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다른사람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사장님도 바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인사하기에 성공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든 처음 가는 곳이면 전부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저는 지금 유학생으로서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예의를 잘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의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니까 더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사를 잘하는 시령리가 되겠습니다.



## 나의 가치

이즈미야마 시가꼬  
(일본, 세종시 거주)

“엄마, 좋은 말 알려줄게요.”

어차피 그냥 농담 비슷한 내용이겠지... 그런데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작은 성공이다”

“.....그러네...”

저는 요즘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바빠서 그런 시간이 아니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간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어강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밤에 눈을 감으면 3초 후에는 아침이 오고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으로 유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지만 더 문제인 것은 ‘한일관계’입니다. 누가 봐도 악화 되고 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눈에 띄게 일본어수업(방과후수업 등)을 시작하려는 학교가 없어지니까 마음만 급합니다.





물론 제 일거리가 적어지는 것도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일관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인은 일본어를, 일본인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류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중학교와 일본에 있는 회사와 제품 계약을 한 회사, 두 곳에서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아주 예뻐요. 회사에서도 꼭 필요하고 물론 일 때문에 일본인이랑 얘기를 해야 되어서 배우고 있지만 스스로가 친해지고 싶다, 더 깊은 내용을 얘기 하고 싶다 등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나고 더욱 교수법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쓰고 싶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물론 완벽한 한국어가 아니지만요).

IT국가인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트샵 등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게 배웠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니 조금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충분히 한국에 살고 있는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딸에게 이 말을 듣고 뭔가 느꼈던 것입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작은 성공이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어나 컴퓨터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아이가 커서 일본어강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일이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있으면서도 계속 일자리가 있었고 제가 노력하는 만큼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노력해야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에 다니면서 일본어를 한국인 입장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에 깊이 공부하고 있고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올 해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여러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배우면서 ‘기다려야하는 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기로 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때’에 맞추어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가치를 가진 하나의 다문화여성으로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 한국인다운 한국인, 엄마다운 엄마

이즈미야마 시가코  
(일본, 세종시 거주)

올 여름에 한국인다운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인에 대해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정이 많고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 입니다.

우리 딸은 고3입니다. 진학 지망한 학과를 생각해서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장애인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머니들’을 만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알아봤지만 학생들의 봉사활동 예약으로 꽉 차있어서 거절당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어떤 장애인 집으로 가서 누워있는 아드님과 그 어머니를 도와주는 봉사였습니다. 우리 딸은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 없다고 얘기 했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다고 들어와서 저에게 보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고맙게도 운동 치료를 할 때에도 언어 치료를 할 때에도 계속 딸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일이 설명해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장

애인도 그렇지만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또 한명의 자폐증 아이와 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당당하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저희 딸도 자폐증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밝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아이도 그 뒤에 숨은 많은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저희 딸에게 많은 정보와 조언을 해주시는 두 어머니를 생각하며 저도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키웠을까?’

‘나라면 울기만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희 딸이 봉사를 끝내고 인사하고 나올 때 장애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잘 해. 한국인도 살기 힘들어. 외국인이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겠니.” 전 정말 한국인다운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정이 많고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 거기에 더해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희 딸은 여름방학이 끝난 후 대학교를 향해서 힘을 내서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준 좋은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저희 딸도 한국인다운 한국인이 되고 엄마다운 엄마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해 만세

장 해 구  
(중국, 대전 거주)

저는 대전동구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해구입니다. 2007년 중국에서 시집왔습니다. 지금 남편과 아들 하나 두고 3식구서 행복하게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일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는 사람은 남편 한명 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일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매일 혼자 집에 있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제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남편이 저에게의 믿음과 이해였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왔을 때 남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제 남편에게 조언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와이프에게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것 맡기지 말라고”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은 제가 오자마자 월급통장과 카드를 주었고 필요할 때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남편이 미쳤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믿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믿어준 만큼 제가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취득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로 취직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생활하면서 편견과 차별받는 경험이 위 사례뿐만 아니라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지하상가에서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이 옷 얼마예요?”라고 물어봤는데 옷가게 주인이 저를 머리위로부터 발끝까지 쳐다보고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분해서 그 옷가게 주인과 따지고 싶었지만 제 한국어 표현력에 자신이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아마 그 옷가게 주인은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비싼 옷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나봅니다. 왜 외국인에게 이렇게 편견과 차별을 가질까요? 아마 한국은 오랫동안 “한국적인 것”이라고 말해온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수용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점점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는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다문화인식개선 강사로 변신했고 대전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복지관에 다니면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 생생한 경험을 어느 교재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교육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가족을 생각해보면 서로 믿어주고 이해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약 17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내 친척들 중에 누군가 외국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내 옆집에 다문화가족이 이사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한국사회도 아름다운 다문화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제2고향

장 해 구  
(중국, 대전 거주)

“해구야, 요즘 한국에 메르스 때문에 난리라던데 빨리 중국으로 오지 않고 뭐 해요?”

며칠 전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즘 국민들의 제일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메르스” 이야기 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ㄱ” 치면 메르스와 관련된 “메르스 증상, 메르스 발생지역, 메르스 사망자 등등.....” 정말 뉴스를 보면 볼수록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8년이 되었고, 이미 한국에서 뿌리 내렸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저희 가족과 같은 다문화가족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 덕분에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다보면 오히려 중국에 가면 잘 적응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3년 전에 중국 친정집에 갔습니다. 2일 뒤에 온 몸에 두드러기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놀라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는데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의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의사가 하는 말에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마시는 물이

몸에 잘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항상 대전 물이 최고라고 자랑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 대전물이 진짜 좋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고향의 물을 마시고 자란 제가 몇 년 동안 한국 물을 마시다가 이제 고향의 물이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며칠 뒤에 오랜 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내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친정집에서 시내에 가는 버스노선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래도 찾아보아도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시내에 도착하고 나서 모임 장소를 못 찾아서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공중전화를 찾으려고 빙빙 돌아 다녀도 공중전화가 보이지 않았습니. 예전에 길거리와 슈퍼에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지금 왜 하나도 없는 걸까? 길거리에 장사하는 아줌마에게 여쭙았는데 아줌마가 외계인을 보듯이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 보고 말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어요.”

제가 민망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공중전화기 없어진 지 몇 년인데 공중전화를 찾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요즘 사람마다 휴대전화를 쓰지 누가 공중전화를 써요.”

“아~~ 그렇군요.”

그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 가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몇 번 버스를 타는지, 어떻게 가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국 어딜가든 겁이 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공



충전화도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휴대전화  
가 많이 보급돼서 거의 개인마다 휴대전화를 다 갖고 있어도 잠깐 한국에 방문  
한 외국인에게는 아직 공중전화가 필요한데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일을 보다가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지고 급하게 전화해야 할 때 여전히 공중  
전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더 사람에게 배려해준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살다보면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한국이 살기 좋아서 그런가요?  
답은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은 한 곳에 오래 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지고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환경이  
중국보다 좋습니다. 공기도, 물도, 나라도, 사회도.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관심  
을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제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저의 제2고향 -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015 4집

—  
무지개빛다문화  
희망노트